2012.09.12 NO.175
korea.kr/gonggam

Weekly 공감

책 읽는 즐거움 미래를 두드린다 P27~45

피치도 '더블A'로… 한국 국가신용등급 日·中 앞섰다 P6~7

장애인올림픽 선수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P20~25

세계자연보전총회 2012 제주

독서는 정신의 '힐링'

이용준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9월 독서의 달이다. 해마다 맞이하는 독서의 달이지만, 올해는 특히 정부가 지정한 독서의 해이기에 이 가을이 더욱 기대된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독서는 자칫 구시대적인 문화습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연령층이 낮을수록 독서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소위 인터넷, 모바일 세대는 읽는 것보다는 보는 것 또는 검색하는 것에 더 익숙한 문화적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손에서는 스마트폰이 떠나질 않는다. 이들은 지루한 것은 15분 이상을 못 견디는 '쿼터리즘(quarterism)'의 습관을 갖고 있으며, 이들을 소비 대상으로 하는 문화는 어떻게든 초반 3, 4분에 이들을 사로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세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인내력이 부족하고, 잠시의 충동을 참아내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 충동적 범죄와 젊은 세대들의 자신의 편안만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 확산도 이런 환경의 영향이 커 보인다.

올 초 정부는 늘어나는 범죄와 학교폭력 등에 대한 치유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체육활동 강화와 함께 독서활동의 강화도 추진했으면 한다. 체육활동이 육체에 스민 폭력성을 치유할 수 있다면, 독서는 병든 정신을 치유하는 탁월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요즘 각종 매체에서는 치유, 즉 '힐링(Healing)' 열풍이 불고 있다. 방송, 출판, 강연, 전시 등에서 힐링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독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원하는 힐링의 최고 수단이 될 수 있다.

독서의 필요성은 또 다른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흔히들 현대사회를 지식정보사회라고 한다. 이것은 지식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그 어떤 경제적 활동보다 높은 가치를 생산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히려 21세기에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체계적인 독서는 마구 습득된 지식정보를 선별하고 정제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하는 소중한 활동이 된다.

올해 독서의 해 사업은 읽는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국민들의 기능적 문맹을 감소시키기 위한 범국가적 사업이다. 요즘 방송, 출판 등에서 힐링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 면에서 독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힐링의 최고 수단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 독서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놀랄 만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상위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인의 독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를 독서의 해로 선정해 독서 문화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서의 해를 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다. 결국, 독서의 해 사업은 읽는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기능적 문맹을 감소시키기 위한 범국가적 사업이며, 하이라이트인 독서의 달 행사는 정말 전 국민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행사이다. G

Contents

175호
2012.09.12 통권 276호

표지 이야기 | 책을 보는 모녀(母女)의 미소가 가을 햇살만큼이나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내 아이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책 읽는 모습을 보는 것 역시 부모에게는 더할 수 없는 행복이요 기쁨이지요. 음식은 아이의 육체를 키우고, 책은 아이의 정신을 살찌웁니다. 올 가을엔 사랑스런 아이와 함께 독서의 향기에 취해 보십시오. 아이가 한 뼘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이요셉 / '2012 손 안 애서(愛書)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작

기획특집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깨운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입니다. '마음의 양식' 독서를 통해 정신을 살찌울 때죠.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독서를 "가장 싼값으로 가장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 데발로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책과 사귀라"고 했습니다. 지난여름의 가뭄과 폭염, 그리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지쳤다면 올 가을 좋은 책으로 원기를 보충하십시오. 풀벌레 울음 벗 삼아 밤늦도록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노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질 겁니다. 온 가족이 책과 함께 풍성한 가을 되시길…

27

18

46

54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2.09.1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20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Weekly 공감〉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를 읽고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소식에 마음 뿌듯

환상의 섬 제주도에서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린다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총회 최초로 개최지 이름을 딴 '제주선언문'도 채택한다고 하니, 제주도가 '환경보물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비전 '저탄소 녹색성장'에 더욱더 탄력을 불어넣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창원 람사르 총회'를 경험 삼아 자연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성공적인 총회로 치러지길 염원합니다.

이인숙(50·교사·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서울 서초경찰서 안상길 강력계장 보며 안심

자고 나면 끔찍스러운 사건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린이 성폭행을 비롯한 묻지마 흉기난동사건 등을 보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은 나날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이 있기에 그나마 사회가 움직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인 검거의 달인인 서울 서초경찰서의 안상길 강력계장 같은 경찰이 많았으면 합니다. 안상길 계장의 노력은 범죄 없는 사회의 시발점이 되리라 여기며 파이팅을 외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열(64·무직·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곰두리 봉사회에 아낌없는 박수를

그중 공감이웃 장애인도 함께하는 곰두리 봉사회의 농촌 재능 기부 편을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곰두리 봉사회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는 장애인이 많다는 내용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그분들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이들을 본받아 항상 남을 아끼고 사랑하며 주위사람들을 돌보면서 살리라 다짐해 봅니다.

박영옥(37·자영업·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범국민적 교육 강화해야

174호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125년 전 일본 교과서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본과의 분쟁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생겨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사료들이 많이 발견됐으면 합니다. 또한 그 자료를 활용해 독도에 대한 범국민적 교육도 강화했으면 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독도의 역사와 의미를 잘 알고 어디에서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독도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황민호(23·대학생·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독자 인터뷰

"아이들 학교숙제 자료로 유용해서 늘 기다려요"

임수정(41·인천 서구 당하동)

임수정씨는 프리랜서 미술 디자이너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위클리 공감〉이 '기다려지는 잡지'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위클리 공감〉에 실린 다양한 정보를 아이들의 학교 숙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때가 많다는 것도 잡지를 기다리는 이유다. 임씨는 〈위클리 공감〉을 접한 후부터는 정책에 관한 최신 소식을 빠르게 알 수 있어 남보다 한발 앞서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174호에서 재미있게 읽은 기사는.

아이를 기르는 주부로서 최근의 강력범죄를 보고 답답함을 느끼던 차에 민생치안에 관한 특집 기사가 있어 유심히 읽었다. 사회에 대한 분노를 품은 사람에게 가족이나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최선책이라는 전문가의 말에 공감했다. 성범죄나 묻지마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창시절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한층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앞으로 〈위클리 공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정부 정책을 충실하게 알리는 기사도 좋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위클리 공감〉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흐름을 좀 더 다양하게 실어서 '대국민 상식과 정보, 교육잡지'의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영화감독, 미술인, 연극인 등 문화 인물에 대한 인터뷰 기사도 매주 한 꼭지씩 다루었으면 한다. '세계자연보전총회' 기사를 통해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구해 온 녹색성장 정책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제주의 아름다움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알림

'책 속에서 찾은 즐거움' 공유하기 이벤트

책을 읽으시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보신 경험 있죠? 줄을 치거나 인덱스 테이프를 붙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책 속에서 찾은 즐거움 공유하기' 이벤트입니다.
책 속의 좋아하는 구절을 페이스북 친구들과 나눠보세요.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 책 이름과 좋아하는 구절, 페이지만 적어넣으면 됩니다. 책 더 많이 읽으시라고 30분을 추첨해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가 곧 공유니까요.

참여 대상 |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방법 | 이벤트 페이지(http://hellopolicy.kr/2012book)에 접속
참여 기간 | 10월 31일까지
당첨자 발표 | 11월 2일

독도의용수비대 정신계승 UCC 공모 및 백일장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가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독도사랑·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UCC 및 문학 작품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의 소재는 사업회 홈페이지에 제공된 자료 등을 활용하면 된다. 팀별 신청은 UCC에 한하며, 팀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한다. 심사는 주제의 적합성과 활용성 등을 고려해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대상 | 전 국민
응모주제 | 독도를 지켜낸 의병과 독도 사랑 등
응모분야 | UCC 및 백일장(산문 또는 운문) 부문
응모일정 | 10월 15일까지
시상내역 | 총 54편(일반부, 초등부, 중·고등부)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www.dokdofoundation.or.kr
이메일 접수 : dokdo1956@naver.com
우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9 동우 국제빌딩 801호 재단법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문의 | ☎02-783-1956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9월 20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 밀가루를 반죽해 끓인 국에 적당한 크기로 떼어 넣어 익힌 음식.
4. 이곳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아 볼 수 있죠.
6. 그날그날의 비, 눈, 구름, 바람, 기온 같은 것이 나타나는 기상 상태.
7. 성의 없이 겉으로만 하는 인사.
9. 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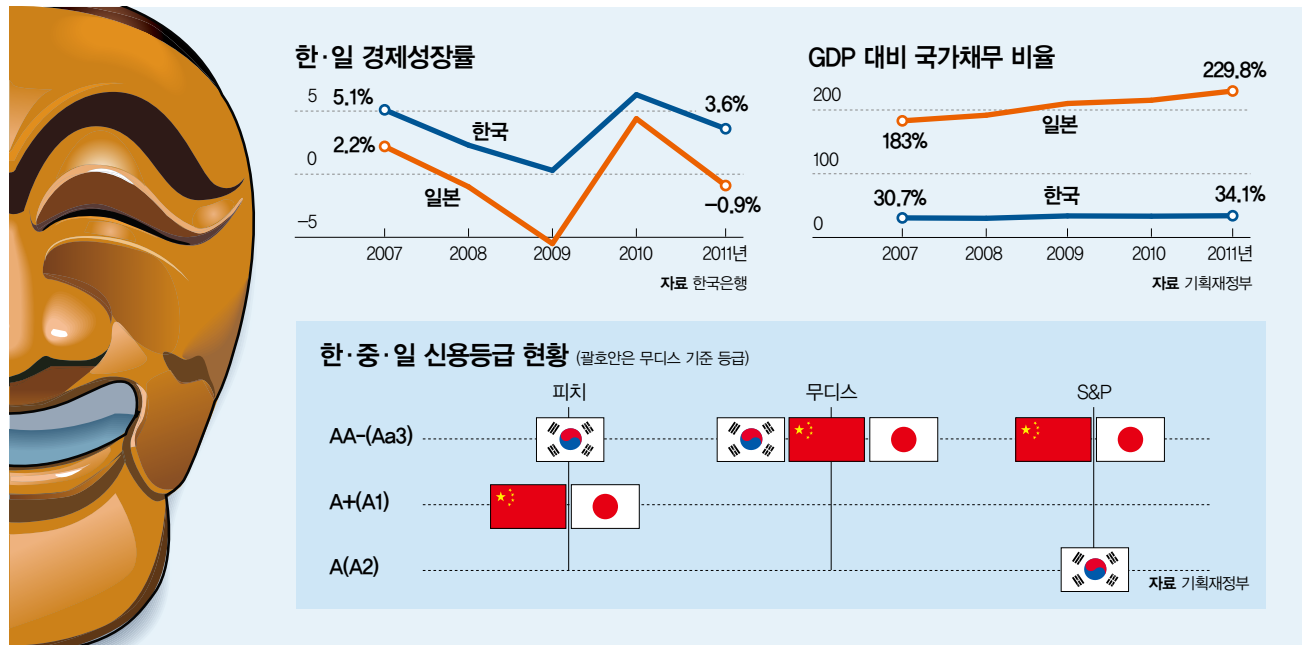
세로
1. 이웃나라가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2. 나무의 줄기와 잎이 많이 달려 있는 줄기의 윗부분.
3. 2년에 한번씩 열리는 국제 미술 전람회.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광주 OOOO에는 40개국에서 출품한 3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5. 서양 여러 나라의 사람.
8.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주로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OOO 손님과 어머니'

〈Weekly 공감〉 173호(8월 29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1 휠체어 3 이듬해 5 아무개 7 일리 8 파수꾼
세로 2 어버이 4 해파리 5 아열대 6 개화파 9 일꾼

〈Weekly 공감〉 173호 '공감 퍼즐' 당첨자
성우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윤교·대구시 달서구 용산2동
심은미·강원도 태백시 대학길 81
정세미·서울시 노원구 하계2동
강정례·전북 익산시 약촌로 202

한국 국가신용등급, 일본·중국도 제쳤다

피치, AA−로 한 단계 상향… 무디스에 이어 '더블A'로 경쟁력 공인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한 단계 높은 등급이다. 우리나라가 당당히 경제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의미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긍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11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 지 11개월 만의 일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5년 만에 외환위기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하게 됐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지난 8월 27일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당시 어느 정도 예상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란 점은 분명하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의 성장동력으로 불리는 독일마저도 신용등급이 깎였다. 최근에는 EU도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정돼 등급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이유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실물과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돋보인다는 설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고 성장세를 회복했다. 신용등급이 우리나라와 같은 AA 그룹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7~2011년 사이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5퍼센트로 AA 국가들(중앙값 2.7퍼센트)을 앞질렀다.

신용등급 깎인 독일에 비해 이례적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 등 튼튼한 거시경제정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경기둔화와 선거 등 재정지출 요인이 많았지만 재정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으며 재정이 상당히 부실해졌다.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조정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재정수지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에서 빨리 회복한 것이 큰 힘이 됐다. 관리재정(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수치)은 소폭 적자지만 통합재정은 흑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5퍼센트 흑자였고 올해는 0.8퍼센트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해 내년부터는 관리재정도 흑자전환할 계획이다.

탄탄한 재정·대외건전성 향상 호평

대외건전성도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먼저 단기외채가 감소했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08년 9월 51.9퍼센트에서 지난 6월 33.8퍼센트로 하락했다. 외환보유액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해외부채를 상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피치는 설명했다. 지난 8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천1백69억 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 1위는 중국이며 일본, 러시아, 스위스, 대만, 브라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소득 수준이나 사회정치적 안정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북한 정권의 붕괴 등 우려가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피치는 전망했다. 피치는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국가채무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신용등급이 추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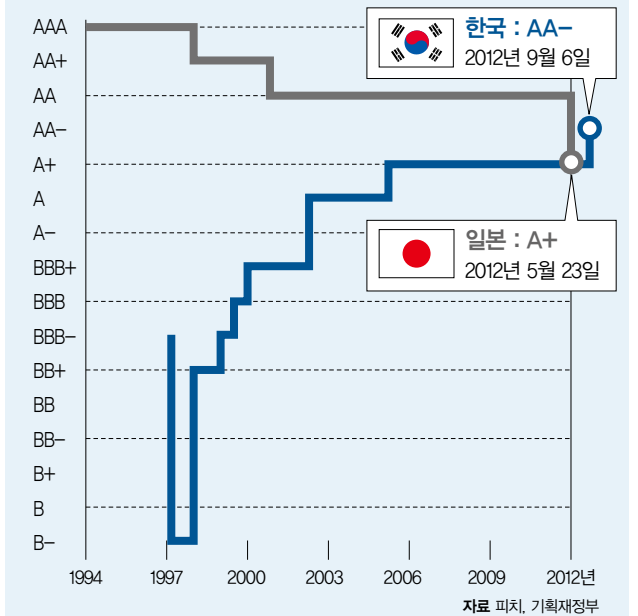
최근 무디스에 이어 피치까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음을 의미한다. G20국가 중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7위가 됐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일본의 신용등급은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A+다.

국제금융시장 "한국이 중국보다 안전"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국내금융기관과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가산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CDS금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이후 낮아지고 있다. 지난 9월 5일 현재 우리나라의 CDS금리는 상향조정 이전보다 8bp 하락한 99bp로 중국보다도 1bp 낮아졌다. 중국보다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CDS는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경우 손실을 보전해 주는 파생상품으로 부도 위험이 높을수록 금리가 올라간다.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선진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이나 제품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해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투자하기 더욱 안전한 나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G

글·변형주 객원기자

S&P도 한국 국가신용등급 올릴까?

최종구 차관보 "상향 가능성 크다" 진단

무디스와 피치에 이어 스탠더드앤푸어스(S&P)사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대열에 가세할까에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의 피치, 미국의 무디스와 함께 세계금융시장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보다 두 단계 아래인 A등급에다 전망도 '안정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 6일 피치사 등급상향 발표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S&P도 우리 등급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레 진단했다.

최 차관보는 "신용평가사들의 뷰(View)가 많이 다르지는 않다"며 "S&P와 다른 두 신평사의 우리 등급 평가가 두 단계나 벌어지기 때문에 (S&P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1백44개국 중 19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은 초등교육에 있었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질은 지난해 22위에서 11위로 대폭 뛰어올랐다.

국가경쟁력 순위 19위로 5단계 '껑충'

세계경제포럼 2012년 평가… 스위스 3년 연속 1위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5단계 상승한 1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4위보다 5단계 상승한 순위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에 이어 5위다. 3대 평가분야 모두 순위가 상승하며 전체 순위를 끌어올렸다.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기업혁신 등이 20위 안에 들어 세계정상급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은 최근 '201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백44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4위보다 5단계 상승한 순위다. 특히 2009년 19위에서 2010년 22위, 지난해 24위 등 순위 하락세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에선 2009년 27위에서 2011년 22위로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위에 올랐으며 지난해 3위와 4위였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자리를 바꿔 4위와 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이 2단계 상승해 9위, 일본은 한 단계 하락한 10위, 대만이 13위, 중국은 3단계 내려앉은 29위였다.

이번 순위 상승은 WEF가 정한 3대 평가분야 순위가 모두 오른 결과다. WEF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를 기준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본요인이 19위에서 18위로, 효율성 증진은 22위에서 20위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18위에서 17위로 올라섰다.

3대 평가분야는 12개의 중간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보건 및 초등교육, 상품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기업활동 성숙도 등 6개 부문은 순위가 상승했다. 이에 비해 거시경제 환경과 기업혁신 등 2개는 하락했다. 인프라, 고등교육 및 훈련, 기술수용의 적극성, 시장규모 등 4개 부문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초등교육의 질' 22위서 11위로 급상승

12개 중간부문 중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시장규모, 기업혁신이 20위 안에 들어 세계 정상급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비해 제도적 요인과 금융시장 성숙도, 노동시장 효율성은 60위 밖으로 밀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평가부문 중 기본요인은 제도적 요인(62위), 인프라(9위), 거시경제(10위), 보건 및 초등교육(11위) 등 4개 중간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도적 요인은 지난해보다 3단계 순위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적재산권 보호, 공무원 의사결정 편파성, 정부 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 등의 순위가 크게 오르며 전체 순위를 끌어올렸다.

2012 WEF 국가경쟁력 순위 (괄호 안은 2011년 순위)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위	스위스(1)	11위	카타르(14)
2위	싱가포르(2)	13위	대만(13)
3위	핀란드(4)	14위	캐나다(12)
6위	독일(6)	⋮	
7위	미국(5)	19위	한국(24)
8위	영국(10)	20위	호주(20)
9위	홍콩(11)	21위	프랑스(18)
10위	일본(9)	⋮	
		29위	중국(26)

자료 WEF, 기획재정부

인프라 요인은 지난해와 동일한 9위를 기록했다. 전체 인프라의 질과 전력공급의 질에서 순위가 소폭 하락했고 항만운송 인프라의 질, 유선전화 가입자 부문에서 순위가 올랐다. 거시경제 환경은 6위에서 10위로 4단계 밀려났다.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의 순위가 하락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도 개선… 세계보건기구 한국사무소 이달 말 폐쇄

보건 및 초등교육은 15위에서 11위로 뛰어올랐다. 초등교육의 질 부문이 22위에서 11위로 대폭 오른 것이 순위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실례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한국 연락사무소가 이달 말에 폐쇄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더는 WHO의 보건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WHO는 1980년대까지 한국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자금을 지원해 결핵·한센병·기생충 퇴치 등 주요 보건·위생 의료사업에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1천50만 달러를 WHO에 지원금으로 내고 있다.

22위에서 20위로 2단계 오른 효율성 증진 분야는 6개 중간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 상품시장 효율성(29위), 노동시장 효율성(73위), 금융시장 성숙도(71위) 부문의 순위가 상승했고 고등교육 및 훈련(17위), 기술수용 적극성(18위)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상품시장 효율성에선 규제완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시 행정절차 수가 78위에서 29위로, 창업 소요시간이 58위에서 25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의 기업활용에의 영향은 85위에서 65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G

글·변형주 객원기자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년까지 재정수지 흑자전환 목표 국가채무도 GDP 30퍼센트 이하 축소

정부가 2016년까지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했다. 재정수지는 성장률 하향 등으로 계획보다 감소할 전망이지만 총수입을 확충해 균형회복 및 흑자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재정건전화를 바탕으로 2013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성장률 하락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세제개선과 세정노력을 강화해 세입을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1조5천백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세외수입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부보유 주식 매각을 추진하고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기존 청사 매각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출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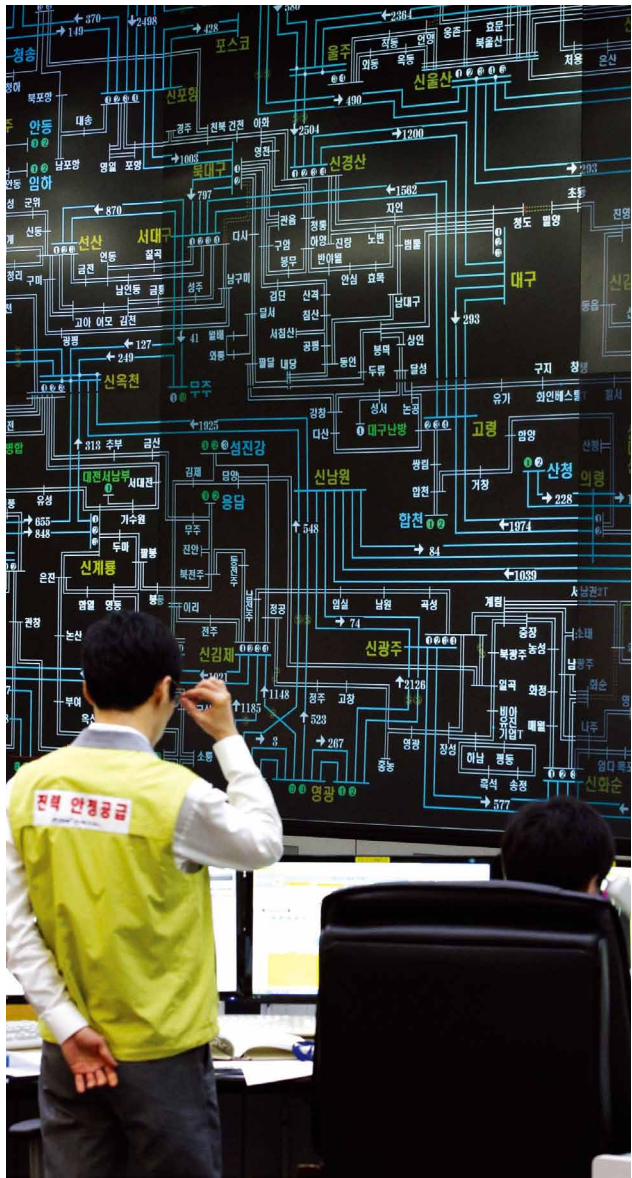
2012~2016년 각 부처의 지출 요구액은 당초 계획보다 1백26조원 늘어났다. 증가율은 7.2퍼센트로 2011~2015년 계획 당시 4.8퍼센트를 크게 상회한다.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가 불어난 데다 고령화와 복지수요와 지방재정 확충 등 새로운 지출 소요가 생겨난 결과다.

재원배분은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충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과 맞춤형 복지 지원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나갈 계획이다.

폭염 지났다고… 지난해 9월 15일 잊지 않았죠?

'대정전' 발생했던 날… 절전 정착됐지만 방심은 일러

지난 여름은 불볕더위의 연속이었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길까 긴장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공급을 확충하고 수요를 조정하며 범국민적 절전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했다. 결과적으로 무사히 여름을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순환정전이 9월에 발생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했으나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대처로 '대정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8월 6일, 전력당국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오전부터 전력수요가 심상치 않았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력소비량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오전 10시, 전력당국은 비상조치에 돌입했다. 오전 10시에 준비단계, 17분 후엔 관심단계, 그리고 11시5분엔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전력수요량은 사상 최대치인 7천4백29만 킬로와트에 달했다.

예비력이 3백만 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지면 발령되는 주의단계는 지난해 9월 15일 정전사태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압조정과 직접 부하제어 등 전력당국이 비상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비상조치가 없었다면 16만 킬로와트에 불과했을 예비력은 2백79만 킬로와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올 여름 전력수급이 만만치 않을 것임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울진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과 보령화력발전소의 화재 등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긴 반면 전력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초의 경우 공급은 2백만~3백60만 킬로와트 감소했지만 지난해보다 기온이 높아 전력수요는 2백만~4백만 킬로와트 증가했다.

올 여름 산업계 협력 유도해 수요관리 성공

수급불안을 해결하려면 공급을 늘리든지 수요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장 발전소를 건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규 발전소의 건설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2006년 수립된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확충될 예정이었던 4백50만 킬로와트의 설비 준공이 늦춰지거나 취소됐다.

반면 전력수요는 해를 거듭할수록 불어나고 있다. 2000~2010년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전력소비 증가율은 4.9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0.4퍼센트보다 12배가량 많다. 같은 기간 일본은 0.2퍼센트, 독일은 0.7퍼센트 증가에 머물렀고 미국과 영국은 오히려 0.3퍼센트, 0.6퍼센트 감소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기온상승에 따라 5월 초부터 수급불안이 발생하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다. 5월 중순에 '하계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해 비상대책을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조기 실시했다. 공급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비는 최소화해 예비력을 5백만 킬로와트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였다.

수요관리를 위해 산업계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우리나라 전력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계의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 주에 몰려 있는 휴가를 8월 중순 이후로 분산하고 조업도 피크시간을 피하도록 유도했다.

산업계도 정부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철강, 시멘트, 제지, 금속, 섬유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대부분이 참여했다. 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6.1~9.21) 동안 전력 피크타임을 조정하고 휴가를 분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약 4백만 킬로와트의 예비전력이 확보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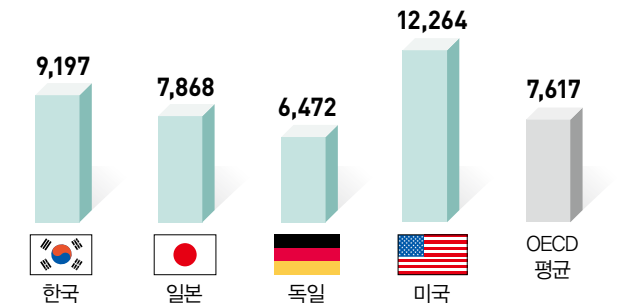
지난 몇달 전국민적 절전캠페인도 한몫

에너지 절약 대책도 다각적으로 실시했다. 신규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를 줄이는 것이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대형건물의 냉방온도를 섭씨 26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백화점과 마트, 화장품판매점 등 냉방 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의 절전을 유도했다.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력낭비 사실을 공개했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규제도 병행했다.

공공부문의 절전운동도 추진했다. 1만9천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5퍼센트의 전기절약을 의무화했다. 피크시간대에는 지역별로 에어컨을 순휴하고 냉방온도는 민간보다 2도 높은 28도로 제한했다.

자율적인 국민 절전캠페인도 실시했다. '국민발전소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국민발전소란 범국민적인 절전캠페인이다. 생활 속에서 4대 절전노력만 실천해도 1백만킬로와트급 발전소를 짓는 전력수급 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아끼자 2~5시', '사랑한다 26도', '가볍다 휘들옷(쿨비즈의 우리말)', '자~뽑자 플러그'라는 4대 절전요령을 담은 '아싸, 가자!!'가 캐치프레즈다.

국민발전소 캠페인의 효과는 상당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6~7월 동안 약 7억6천2백만 킬로와트를 절감했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1천억원이 넘는다. 특히 피크타임인 오후 2~5시 사이에 절감량이 커 한층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 (단위 : kWh, 2012년 기준)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 증가율 (단위 : %, 2000~2010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OECD
산업용	3.2	−3.2	−0.5	−3.9	−1.7	−1.6
상업용	8.1	1.8	1.1	1.5	−0.2	2.1
가정용	5.0	1.2	0.7	1.5	1.0	1.7

자료 지식경제부

절전 필요성 알지만 적극 실천은 33퍼센트

에너지절약 국민 설문… 39퍼센트는 "전기료 비싸다"

'전기절약이 절실하지만 실천은 부족하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8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 절전의식의 현주소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7퍼센트가 우리나라의 전력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97.4퍼센트는 전기절약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절전에 대한 인식은 높았지만 실천은 약했다. 절전을 실천한다는 응답자는 33.3퍼센트에 그쳤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비싸다(39.1퍼센트)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1인당 전력소비량은 선진국보다 많다(56.8퍼센트)고 응답했다. 비싼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절전캠페인인 '국민발전소'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77.9퍼센트에 이르렀지만 알고 있는 응답자의 83.8퍼센트가 이 캠페인이 '절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캠페인이 좀 더 알려지면 절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란 기대를 해 봄직한 대목이다.

통상 전력피크는 8월 3~4주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올해 전력수급의 고비는 무사히 넘긴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순환정전이 9월에 발생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사태는 발전소가 예방정비에 돌입하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사이 예기치 않은 기온상승으로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은 새로운 발전소가 가동되는 2014년 이후에나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절전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글·변형주 객원기자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10월 12일부터 사흘간 전남 영암에서 펼쳐진다.

지상 최고의 스피드 머신 영암벌 가른다

10월 12~14일 전남 영암서… 12개 팀 드라이버 24명 참가

숨 막히는 질주, 고막을 찢을 듯한 엔진 굉음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 지상 최고의 스피드축제 'F1 코리아 그랑프리(F1 한국대회)'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F1 한국대회는 20개 나라를 돌며 치러지는 2012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ship) 시리즈의 16번째 레이스로 전남 영암에 있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펼쳐진다.

F1 한국대회에는 12개 팀에서 각각 2명씩 모두 24명의 F1 드라이버(선수)가 참가한다. 12번째 벨기에대회를 마친 9월 6일 현재 2010년 한국대회의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가 종합점수 1백64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종합점수 1백40점으로 지난해 한국대회 챔피언이었던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달리고 있다. 그 뒤는 마크 웨버(호주·레드불, 1백32점)와 키미 라이코넨(핀란드·로터스, 1백31점), 루이스 해밀턴(영국·맥라렌, 1백17점), 젠슨 버튼(영국·맥라렌, 1백1점)이 쫓고 있다.

우승자 판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페르난도 알론소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단 한 번의 레이스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여태껏 볼 수 없었던 대혼전으로 순위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하다.

한국대회 예선은 10월 13일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후 2시 시작될 첫번째 예선에서 12개 팀 24명의 선수가 20분 동안 자유롭게 레이스를 펼치며, 트랙 한 바퀴를 가장 빨리 돈 랩(Lap)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세 차례 예선서 14명 탈락… 10명 최종 결선

이어 첫번째 예선 기록을 기준으로 하위 7명의 선수를 뺀 17명이 15분 동안 두번째 레이스를 펼쳐 다시 7명을 기록 순으로 탈락시킨다. 연이어 펼쳐질 마지막 예선은 두 번의 레이스에서 남은 10명이 10분 동안 다시 레이스를 펼쳐 결승 때 출발 순위를 가리게 된다.

10월 1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될 결승은 24명의 선수가 예선 성적에 따라 3미터 간격으로 엇갈려 출발한다. 예선성적 1위가 가장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결승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에게는 승점 25점이 주어진다. 2위엔 18점, 3위에 15점, 그리고 4위부터 10위까지는 각각 12, 10, 8, 6, 4, 2, 1점을 받는다. 11위부터선 점수가 없다. 1위와 10위권 밖 선수의 점수 차이가 25점이 나는 것이다. 팀 순위는 소속 선수 2명이 따낸 승점의 합산으로 정한다.

올 F1대회 종합 우승은 한국대회를 포함, 전체 20개 대회의 점수를 합해 결정된다.

F1 한국대회가 펼쳐질 영암 F1 경주장은 국제자동차연맹(FIA)에서 공인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경주장이다. 트랙(서킷) 길이는 5.615킬로미터. 세계에서 세번째, 아시아에서는 가장 길다.

직선 코스는 1천1백60미터로 F1 대회가 열리는 세계 20개 경주장 가운데 가장 길다. 최고 시속 3백20~3백30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다. 직선 코스를 제외하면 18개 코너(우회전 7개, 좌회전 11개)로 이뤄져 있다. 급커브 구간은 레이스의 재미를 배가시켜 준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도록 설계돼 있다.

트랙 남단의 영암호를 낀 마리나 구간은 아름다운 호반을 지나 천혜의 절경을 연출한다. 트랙을 횡단하는 한옥 육교는 한국의 전통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영암경주장의 랜드마크가 됐다.

항공편·KTX·고속버스 증편 운행

영암경주장으로 가는 교통망도 한결 수월해졌다. 지난 4월 말 목포~광양 고속국도와 6월 목포대교가 각각 개통되면서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F1 경주장으로 접근하는 길이 빨라졌다. 대회를 전후해 김포~무안 간 항공편과 서울~목포 고속철도(KTX) 열차도 늘어난다. 수도권에서 경주장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증편도 이뤄진다.

조직위는 올 대회가 열리는 10월 12일 3만명, 13일 5만명, 14일 8만명 이상이 F1 경주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관람객 수송 및 숙박대책도 완벽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

글·이돈삼 객원기자

입장권은 R·S·A 등 세 종류 판매

한국대회 입장권 티켓은 R등급, S등급, A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R석은 레이스의 하이라이트인 스타트와 피니시(결승선 도착) 장면, 피트 스톱(타이어 교체), 대회 개막식 등을 볼 수 있는 최상의 관람석이다. 금·토·일요일 모두 볼 수 있는 전일권이 89만원이다. 결승전이 펼쳐지는 일요일만 보면 72만원, 토요일 예선전만 보면 34만원이다.

S석은 스타트 라인을 마주보는 첫번째 코너에 위치한 좌석. 머신들의 추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다. 머신끼리의 다이내믹한 격돌을 지켜볼 수 있다. 전일권이 60만원, 그리고 일요일권이 48만원, 토요일권은 26만원이다.

A석은 R·S등급을 뺀 나머지 관람석이다. 일요일권이 12만원, 토요일권이 8만원이다. 전일권은 따로 없다.

눈길을 끄는 건 올해 첫선을 보인 금요일권. 연습 주행을 볼 수 있는 관람권으로 R석 2만원, S석 1만5000원, A석 1만원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통해 F1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입장권 가격

등급	전일권(10. 12~14)	일요일(10. 14)	토요일(10. 13)	금요일(10. 12)
R	89만원	72만원	34만원	2만원
S	60만원	48만원	26만원	1만5천원
A	–	12만원	8만원	1만원

• 15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50퍼센트 할인.
• **문의** F1 홈페이지(www.koreangp.kr)와 옥션티켓(ticket.auction.co.kr)

광주비엔날레 개막 첫날인 지난 9월 7일 관람객들이 국내외 작가들의 출품작을 감상하기 위해 광주시 용봉동 메인 전시관을 찾고 있다.

굿모닝, 세계미술!… 웰컴 투 빛고을!

2012 광주비엔날레 개막… '라운드테이블' 주제로 문화적 다양성 '경연'

세계적인 미술축제로 자리매김한 광주비엔날레가 다시 개막됐다. 전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구성이 눈길을 끈다. 제9회 광주비엔날레는 서구 미술의 잣대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과 자주성을 중요 평가기준으로 도입하고 참여 작가를 선정했다.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작가와 관람객이 전시 작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빛고을 광주의 미술혼이 2년 만에 다시 기지개를 켰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9월 6일 밤 광주시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11월 11일까지 66일간의 전시 일정에 돌입했다. 개막식에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운태 광주시장 겸 비엔날레 이사장,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각계 인사 1천5백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주요 프로그램

- 주말콘서트 **'마셔라 예술'** : 매주 주말 2~3회 공연
- 주말예술난장 **'맛보자 예술'** : 매주 주말 14~17시
-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그리자 예술'** : 9월 18~21일
- 관람후기공모전 **'예술의 맛'** : 9월 7일~10월 25일
- 시민 참여작가 전시전 **'나도 비엔날레 작가 마실'** : 9월 3일~11월 11일

아시아 출신 여성 6명이 공동감독

올해 광주비엔날레 참가 작가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92명(팀 포함)이 최종 선정됐다. 아시아 작가는 한국작가 16명을 포함해 모두 44명이 작품을 내걸었다.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에서 26명, 미국 등 미주지역 13명, 오세아니아 4명, 아프리카 5명 등 대륙별로 고른 참여가 돋보였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비엔날레라는 점에서 해외 작가들의 참가 열기도 뜨거웠다. 올해 출품작은 모두 3백여 점에 달한다.

광주비엔날레의 작가 선정은 큐레이터 김선정씨 등 6명의 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 공동감독들이 지난 1년 동안 연구와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선정된 작가들은 개인적 명성이나 특정 경향보다 주로 문화적 다양성과 자주성에 뿌리를 두고 작업을 해온 작가들이다. 특히 새로운 시각에서 현대미술을 개척해 온 작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주제인 '라운드테이블'은 정치적 평등과 독자성을 의미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은 세계화라는 획일성을 거부하는 일종의 '의식의 민주화'를 위한 도구로도 해석된다. 각기 다른 문화의 특성을 존중하는 장치이자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비엔날레의 새로운 플랫폼이기도 하다.

과거 서구 미술의 잣대로 비엔날레 출품 작가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전적 작가에서 좋은 평가를 한 것도 이번 주제와 맞닿아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주제가 가진 함축적 의미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시대를 넘나드는 정신성까지 고려했다. 예컨대 작고한 해프닝 예술의 창시자 앨런 카프로를 초대 작가로 선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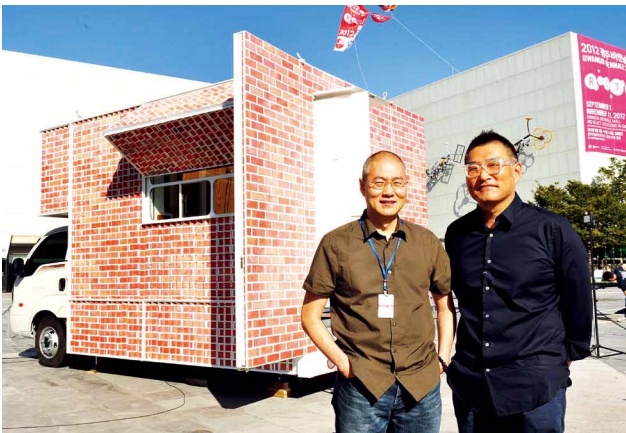
전시관 외 대인시장 등 광주 전역서 전시

낸시 아다자냐 공동예술감독은 "'라운드테이블'의 전체 전시작 중 신작이 차지하는 비율은 60퍼센트에 달한다. 문화적 자주성에 뿌리를 두고 작업을 해온 작가들의 작품에서 도전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 도시 광주의 면모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올해 비엔날레 행사는 전시관 주변으로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광주극장과 사택에는 공간적 특성을 살려 극장의 역사와 광주의 문화를 녹여낸 작품들이 전시됐다. 설치작품과 함께 광주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는 영상 작품도 준비돼 있다.

미술가 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그누스 뱃토스는 광주극장에서 자신의 친구 스벤손의 삶을 무성영화로 만든 〈스벤손 일대기 생중계〉를 상영한다. 조현택 작가는 오래된 영사기와 손으로 그린 영화 포스터 등의 향수 어린 장면들을 작품으로 만들었다.

대인시장 전시에는 광주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다. 인도네시아 출신 작가인 틴틴 울리아는 대인시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조명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사찰도 이번 행사의 주요 무대로 변신했다. 무각사에 가면 불교적 정신, 만남과 인연 등을 주제로 한 명상적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잠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설치미술가 서도호 작가(왼쪽)는 이동식 신개념 호텔인 '틈새호텔'을 출품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구문화센터 맞은편 전광판에도 작품이 상영된다.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제니 홀저의 작품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중외공원, 용봉생태습지를 잇는 이른바 광주의 문화벨트에는 집시들의 생활을 다룬 작품과 무등산을 테마로 한 미술작품이 전시된다.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역대 어느 비엔날레보다 많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레지던시 및 뉴프로덕션'은 초대작가 15명이 광주에 장기 체류하면서 광주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신작품을 전시하는 '장소-특정적(Site-specific)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초대작가 15명 시민참여 프로젝트 준비

이 밖에도 눈길을 사로잡는 이색 작품들이 관람객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설치 작가 서도호의 틈새호텔이 대표적이다. 광주의 역사적 장소, 골목길을 이동하며 주민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호텔이다. 지역 생태계와 교류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획의도에 따라 호텔 체험도 가능하다. 틈새호텔은 미니바, 샤워실, 침대, 냉장고, 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다. 웹사이트(www.inbetweenhotel.com)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광주비엔날레 홍보팀 최리지씨는 "이번 행사는 시민과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광주 시내 곳곳에서 전시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말했다. G

글·김대현 기자

문의 광주비엔날레 www.gwangjubiennale.org ☎062-608-4114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지구책임적 문명을 열어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개막 축하연설… "DMZ를 생태평화공간으로 가꿔 전 세계에 알릴 것"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9월 6일 막을 올려 열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전 세계의 정부와 민간 환경전문가 1만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의 환경 문제와 비전을 논의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자연보전 분야 최대 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환경회의다.

'자연의 회복력(Resilient Nature)'을 주제로 한 지상 최대의 환경축제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가 개막했다.

9월 6일 서귀포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 개막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아쇽 코슬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총재, 줄리아 마르통르페브르 IUCN 사무총장, 이홍구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각국 주요 인사와 각국 대사,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대표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하연설에서 "동북아 최초로 WCC 행사가 제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문을 열면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의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지구책임적 문명(Planet Responsible Civilization)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녹화 성공, 하천복원 등 우리나라의 자연복원 경험을 설명한 이 대통령은 이번 총회 슬로건인 "'Nature+'가 자연자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조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연생태 보호지역 지속확대 ▲생태관광 활성화 등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동해·서해·남해안 도서연안 등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의 보전과 복원 등에 관한 자연환경 비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DMZ를 한반도의 대표적인 생태평화공간으로 가꾸어 전 세계에 평화와 자연환경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개발원조 50억 달러 이상 확대 재천명

지난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오+20' 회의에서 국제사회에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 계획을 밝혔던 이 대통령은 자연분야를 포함한 녹색개발원조(ODA)를 2013~2020년간 총액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 사업의지를 재천명하고, IUCN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쇽 IUCN 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자연보전총회는 4년마다 전 세계 정책입안가, 전문가 등을 불러모아 자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종, 서식지, 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환경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큰 맥락하에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조치를 마련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홍구 조직위원장은 "최근 자연보전과 경제발전의 우선순위를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공동보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자연보전 및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열의를 식히지 않을지 걱정된다"면서 "바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오늘 제주에서 개막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온전한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선도한 글로벌 녹색리더십을 기리는 특별공로패를 IUCN으로부터 받았다.

전 지구 차원의 환경정책을 논의하고 환경 비전을 모색하는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에는 1백80개국 1천1백여 개 단체, 1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오는 9월 15일까지 열흘간 열리게 된다. 총회 기간 동안 주요 프로그램인 세계자연보전포럼을 비롯해 환경 관련 워크숍, 지식카페, 전시 등 4백50여 건의 포럼이벤트가 열린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이틀째인 9월 7일 회의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참석자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World Conservation Congress)
- **기간** 2012년 9월 6~15일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Jeju)
- **주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주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환경부, 제주도

주요 프로그램
- **세계보전포럼** 9월 7~11일
- **회원총회** 9월 8~15일
- **공식투어** 9월 13일
- **특별투어** 1차 9월 12~13일, 2차 9월 16~17일
- **폐막식** 9월 15일

1백80개국 1천1백여 개 단체·1만여 명 참가

또 이번 총회 기간 동안 IUCN 회원 투표를 통해 역대 총회 사상 가장 많이 제출된 1백76개 발의안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총회 폐막과 함께 세계자연보전총회 역사상 최초로 개최지 이름을 딴 '제주선언문'이 채택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는 '환경올림픽'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행사장에 태양광발전 시스템, 옥상정원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 회의자료를 종이 대신 태블릿PC로 전파하는 스마트 총회로 진행된다. 또 총회 참가자들이 전기 셔틀버스, 자전거 등 녹색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총회로 치러진다.

글·박경아 기자

'말춤' 탓일까?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위해 제주로 달려간 '육지'의 열혈 자원봉사자들과 총회 참가자가 함께 어울려 포즈를 취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건, 김정희, 주수정, 김진국씨, 맨 왼쪽은 총회 참가자인 얀 캄스트라씨.

"10일 동안 저희가 '제주의 얼굴'이에요"

육지에서 온 3백여 명 포함한 2천여 명… "May I help you?"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장 안팎에서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돕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국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이들 자원봉사자다. 이번 총회에서도 어떤 이는 제주의 얼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어떤 이는 새로운 나를 찾고 세상을 찾는 과정으로 자원봉사를 택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2012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입국장. 혼자 혹은 두세 명씩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장 출구를 나오며 두리번거릴 때 "May I help you?"하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다. 흰색과 하늘색 배색 셔츠를 입은 세계자연보전총회 자원봉사자들이다.

제주국제공항 안팎에 배치된 자원봉사자 26명은 모두 제주 출신이다. 제주 실정을 잘 아는 안내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침 첫 비행기가 도착하는 오전 8시경부터 마지막 비행기가 들어오는 밤 10시30분까지 종일 입국장 주변을 지키는 이들 가운데 자녀뻘 대학생들과 나란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다. 주부 고영숙(57)씨다.

"아이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 학기 중에는 서울에, 방학 동안은 남편이 있는 제주에서 지내는데, 세계자연보전총회 때문에 학기 중인데도 제주에서 2주일을 지내요!"

고씨는 총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총회 참석차 입국하는 행렬이 이어지는 9월 5일 공항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힘들 텐데도 항상 미소를 잊지 않았다. 그는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회의 전임회장이기도 하다. 이 봉사회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많아지면서 고학력, 그리고 외국생활 경험이 있는 여성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2001년 결성된 단체로, 회원 수는 약 1백30명가량이다.

고씨는 "제주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해 자랑스러운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외국의 유명 브랜드 생수보다 더 좋은 제주도 물"이라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제주 삼다수가 세계에 널리 홍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물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한국청소년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맹의 박호형(46) 회장도 휴식 공간도 따로 없는 공항에서 총회 기간 내내 자원봉사를 한다. 그는 "제주도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자원봉사에 나섰다"며 "제주를 알리는 것이 곧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서귀포에 도착한 총회 참석자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등록센터다. 등록센터 역시 많은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다. 이들 가운데 금발머리 자원봉사자가 눈길을 끈다. 외국인 자원봉사자? 아니다. 그는 제주 신성여고 2학년 김아나(18) 양이다.

"저를 보고 외국인 참가자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 재미있어요!"

깔깔 웃는 모습이 영락없는 여고생 맞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의 한국인 아빠와 재혼한 엄마를 따라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 제주도로 이주했다. 러시아어에 능한 그를 선생님이 추천해 주어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고 한다.

"아직은 얼떨떨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외국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요? 그건 제주도의 깨끗함이에요!"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위해 단체와 개인 자원봉사자 약 2천명이 활동 중인데, 이 가운데 3백명가량이 '육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행사기간 중 일부만 활동하는 이들도 있지만, 육지생활을 2주일간 딱 접고 내려온 열혈 봉사자들도 적지 않다.

'종이 없는 회의'… IT기기 사용법도 익혀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에서 일하는 김정희(47)씨는 일 년 휴가를 털어 이번 총회기간 내내 자원봉사를 한다.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개회식, 의원총회 등에서 안내를 담당한다.

"자원봉사는 처음이에요. 이번 총회가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되니, 참가자들에게 정보기술(IT) 기기 사용법 등을 설명해야 해서 따로 전문용어 공부도 했어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도 있다. 의무실 자원봉사자인 이건(42)씨. 소방공무원으로 8년 근무하다 현재는 오산 미군기지에서 소방검열관을 맡고 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 자원봉사하러 가서 깨달은 것이 자원봉사를 통해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올해에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택한 겁니다."

이씨 역시 올해 휴가를 세계자연보전총회에 '헌납'했다. "아내요? 저를 내놓았죠(웃음). 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역할모델이란 점 때문에 봐주더군요. 언젠간 아내도 '봉사의 세계'로 들어올 테죠."

재능나눔사진봉사단 '만원의 행복' 단장인 사진작가 김진국(48)씨는 기록사진 담당 자원봉사자다. 여수엑스포에서도 기록사진 자원봉사 활동을 한 그는 "제주도로 자원봉사를 오게 되면 모든 일을 다 접고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신이 맡고 있는 사진 강의도 다 미루고 왔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그의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을까? "실은 부부가 함께 세계자연보전총회 자원봉사자로 지원했는데, 안타깝게 심사과정에서 저만 붙고, 아내는 탈락했어요. 제가 아내보다 영어를 좀 더 잘하거든요."

'제주의 얼굴'이란 자부심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제주 지역 자원봉사자들(위쪽 사진). 이제는 어엿한 제주 여고생인 김아나양도 제주자연보전총회를 거들고 있다.

이러한 쟁쟁한 어른들 틈에서 똘망똘망한 눈을 빛내는 새내기 자원봉사자도 돋보였다. 회의장 안내를 맡고 있는 대학생 주수정(21·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씨다. 어릴 때부터 환경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님을 졸라 청강생으로 강의를 들었고, 그 인연으로 이번 총회에 자원봉사자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봉사활동 통해 새로운 자신 발견

그는 지난 8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외국어대 주최의 모의유엔총회에서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국립외교연구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수를 다녀온 것도 아닌 순수 토종 실력파다.

지역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혹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세계자연보전총회로 향한 자원봉사자들. 이들은 푸른 제주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며 제주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었다.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장애를 넘어 편견을 넘어 모두가 챔피언

11일간 인간승리가 펼쳐진 제14회 런던 장애인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장애인올림픽 발상지 영국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에는 1백66개국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0여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었다. 13개 종목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과 임원 1백49명은 혼연일체가 되어 감동과 희망의 무대를 연출했다.

우리나라는 사격 혼성 10미터 공기소총 입사 SH2(경추장애) 종목에서 강주영 선수가 장애인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고, 휠체어 탁구에서 김영건 선수가 중국의 벽을 넘고 2004년 아테네 대회 이후 8년 만에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겼다. 장애인올림픽에 6회 연속 출전한 탁구의 김경묵 선수도 혼신의 경기를 펼친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걸어 보는 이를 감동시켰다.

수영 지적장애인 부문에서 조원상 선수는 동메달을 차지, 이 종목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메달이라는 영광을 기록했다. 대회 막바지인 9월 6일 양궁의 '숙자매'로 불리는 김란숙, 고희숙, 이화숙 선수가 여자 단체전에서 중국팀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에 그친 설움을 날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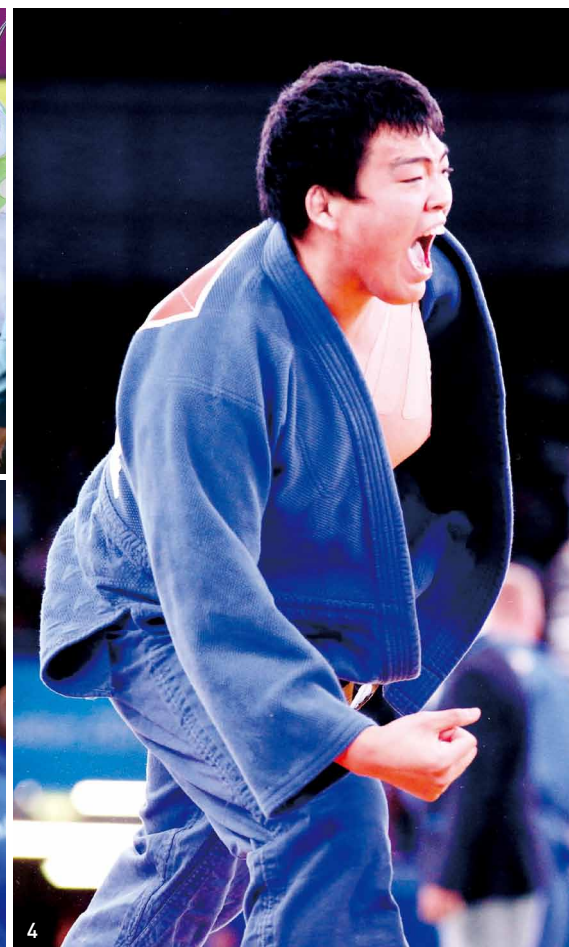
글 · 이상흔 기자

1 한국 장애인올림픽 선수단의 기수인 김규대 선수가 육상 남자 5천미터(T54) 결승에서 선두로 트랙을 질주하고 있다. 김 선수는 같은 종목 1천5백미터 부문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2 전민재 선수가 여자 육상 200미터(T36) 결승에서 은메달을 딴 후 시상식에서 활짝 웃고 있다.

3 남자 탁구 단식 클래식4 결승에서 김영건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 기뻐하고 있다.

환희와 아쉬움

외국 선수들도 파이팅!

1 여자 양궁 3인방인 김란숙, 고희숙, 이화숙(왼쪽부터)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 지은 후 기뻐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올림픽 여자 단체전 사상 첫 금메달이다.

2 여자 탁구 개인 3·4위전에 출전한 문성혜 선수가 동메달을 결정짓자 환호하고 있다. 베이징 대회 이후 2연속 동메달 획득이다.

3 사격 혼합 R5 10미터 공기소총 복사 결승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나서 아쉬워하는 이지석 선수.

4 유도 남자 100킬로그램 이하급 경기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최광근 선수가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미국 선수를 제압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5 창던지기 종목에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의 스캇 서번 선수. 이번 대회에서 포환던지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그는 평소에 럭비와 사이클도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이다.

6 지난달 런던올림픽에도 출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선수가 남자 육상 100미터 예선에서 질주하고 있다. 피스토리우스는 4백 미터 계주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격 박세균이 지난 9월 7일 혼성 권총 50미터 SH1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박세균은 장애인올림픽에서 통산 금메달 3개를 딴 최초의 남자 선수가 됐다.

수영 남자 평영 100미터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임우근이 힘차게 스타트하고 있다.

6일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숙자매' 김란숙, 고희숙, 이화숙(왼쪽부터)이 시상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진종오처럼… 박태환처럼… 기보배처럼

사격 박세균 2관왕… 수영 임우근 · 양궁 '숙자매' 단체전 金

지난 10일(한국시각) 폐막한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최선의 결과를 보여줬다. 경기 첫날부터 금메달을 안긴 사격의 박세균은 대회 최초로 2관왕에 오르며 장애인올림픽 판 '진종오'로 등극했고, 유도의 최광근, 수영의 임우근 등은 역경을 이긴 드라마로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양궁 여자단체팀 '숙자매'들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사격 박세균

통산 금메달도 세 개… 진종오 행로와 '판박이'

장애인 남자 사격의 간판스타 박세균이 남자 권총 50미터에서도 세계 정상에 올랐다. 런던장애인올림픽 사격 2관왕의 탄생이었다.

박세균은 7일 런던 왕립 포병대 사격장에서 열린 사격 혼성 권총 50m SH1(절단 및 기타장애) 결선에서 92.4점을 쐈다. 본선 점수 5백50점를 포함해 합계 6백42.4점으로 당당히 금메달을 손에 쥐었다. 은메달은 6백33.2점을 쏜 러시아의 발레리 포노마렌코가 차지했다. 6백25.3점을 기록한 중국의 니허동은 3위였다.

지난달 30일 사격 혼성 권총 10미터 부문에서 한국 장애인올림픽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박세균은 이날 금메달 1개를 추가하며 이번 대회에서 최초로 2관왕에 올랐다. 박세균은 2008년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도 사격 혼성 권총 50미터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번 금메달 2관왕으로 박세균은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딴 최초의 남자 선수가 됐다.

10대 때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얻은 뒤 농구선수로 장애인 체육에 입문한 박세균은 1998년 방콕 장애인아시안게임과 2000 시드니장애인올림픽에는 휠체어 농구선수로 출전했다. 이후 권총으로 종목을 바꿨고 지난 2008년 베이징대회 권총에서 깜짝 금메달을 따며 장애인 사격의 간판스타로 떠올랐다.

수영 임우근

시상식서 받은 꽃다발 감독에게 바쳐

임우근이 장애인올림픽 수영에서 아시아 신기록으로 1인자 자리에 올랐다. 임우근은 5일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 패럴림픽 수영 남자 100미터 평영 SB5(지체장애) 결승에서 1분34초06의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당당히 금메달을 땄다. 한국 선수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1988 서울장애인올림픽 수영 남자 배영 200미터에서 김종우가 금메달을 딴 이후 24년 만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리를 수술한 후 재활을 위해 수영을 시작했던 임우근은 본격적으로 선수가 된 후에는 세계대회에 출전해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당시 최강자였던 멕시코의 랑헬 페드로 선수의 모습을 보고 감명받아 그를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임우근의 승부욕은 성적과 함께 점점 올라갔다.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 때는 메달권에 들지 못했지만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땄다. 그해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다관왕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상대가 없었다.

임우근은 시상식 때 메달과 함께 받은 꽃다발을 2층에서 지켜보던 조순영 감독을 향해 힘껏 던졌다. 지난 8개월간 임우근을 위해 자신의 아들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헌신적으로 훈련 지도에 매진한 조 감독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다.

양궁 이화숙 · 고희숙 · 김란숙

중국에 6점차 승… '양궁 한국' 체면 살려

한국이 장애인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다. 이화숙, 고희숙, 김란숙 3명으로 이뤄진 한국 대표팀, 일명 '숙자매'는 6일 영국 런던 왕립 포병대 양궁장에서 열린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중국을 1백99 대 1백9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양궁에서 나온 첫 금메달이다. 여자 양궁은 비장애인 올림픽에서는 전통의 효자 종목이지만 장애인올림픽 여자 단체에서 금메달을 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4 아테네장애인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고,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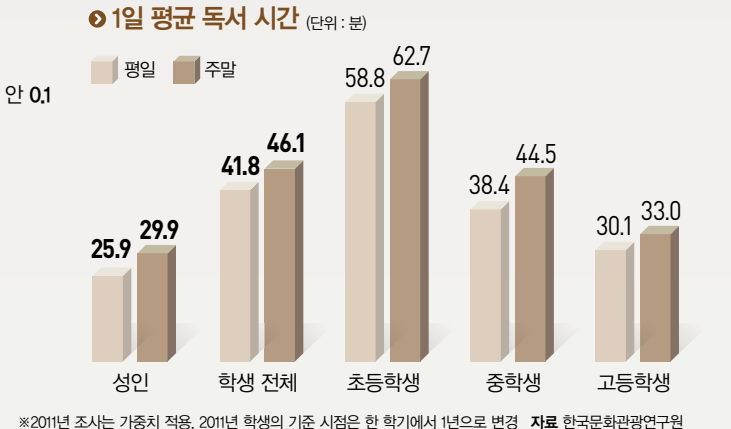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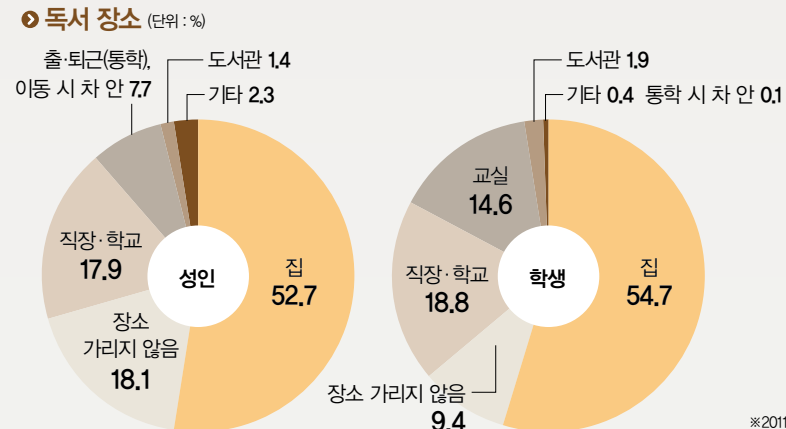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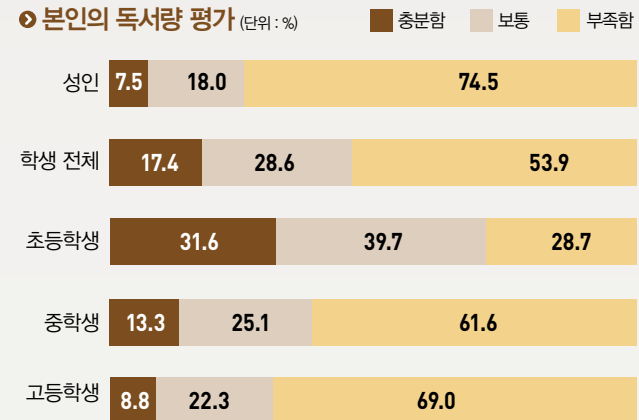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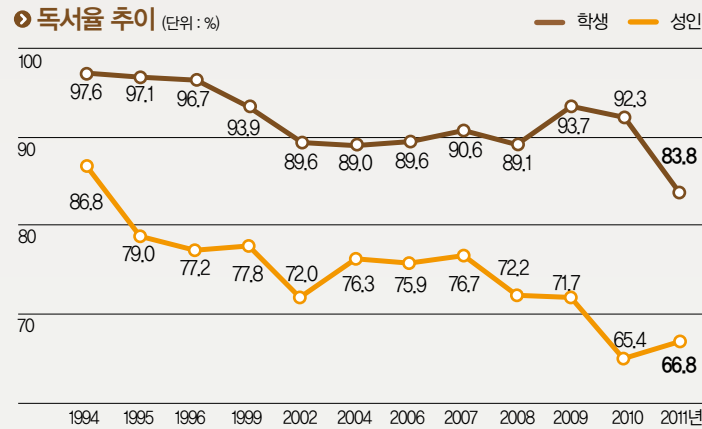
이는 런던의 금메달은 이전의 올림픽의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화숙과 고희숙은 2004 아테네 여자 단체 3위의 주역이었다.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 때는 김란숙과 이화숙이 단체전 멤버였다. G

글 · 하주희 기자

기획특집

풀벌레 벗삼아 독서삼매경 세상의 길을 찾아보자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입니다. '마음의 양식' 독서를 통해 정신을 살찌울 때죠.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독서를 "가장 싼값으로 가장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
데발로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책과 사귀라"고 했습니다.
지난여름의 가뭄과 폭염, 그리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지쳤다면 올 가을 좋은 책으로 원기를 보충하십시오.
풀벌레 울음 벗 삼아 밤늦도록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노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질 겁니다.
온 가족이 책과 함께 풍성한 가을 되시길…

일러스트 · 유현호

책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독서의 달' 9월에 8천3백여 행사… '10만 독서마니아 클럽' 달성 추진

독서력은 한 국가의 지식수준과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다. 우리나라는 최근 7년 동안 성인 독서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들의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를 '독서의 해'로 정하고 이를 3월 9일 선포했다. 이후 '책 선물하기 생활화', '도서관·서점 찾기', '책책폭폭 책 드림 콘서트'등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해 왔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거주하는 남궁담씨는 장편동화 <철물 사러 오세유>로 2009년 한국안데르센상을 수상한 동화작가다. 그는 요즘 1주일에 5시간씩 집 근처 구립도서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대상의 글쓰기 교실을 각각 진행 중이다. 6개월 과정의 이 글쓰기 교실은 '책 읽어 주기' '작가 탐구' '올바른 독서법' '생활 글쓰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동화작가 남궁담씨가 서울 광진구립도서관에서 지역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독서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강의는 정부가 진행하는 '2012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의 일환이다.

남궁담씨는 "현역작가가, 그것도 무료로 강의를 해서 그런지 지역주민들이 무척 좋아한다"며 "입시 중심의 논술이 아닌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강의라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뿌듯해했다. 이 글쓰기 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올해 3월부터 진행 중인 '2012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의 일환이다.

전국에서 책 콘서트… 독서문화 유공자 시상도

이 사업은 문화 취약지역 공공도서관 및 문학관에 지역 문학작가를 파견해 다양한 독서·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 내 역량 있는 문학작가들을 후원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남궁담씨는 매월 강의료 80만원과 창작지원금 40만원을 한국도서관협회로부터 받고 있다.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지정한 문화부는 이 사업 외에 독서인구 확대와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진행해 왔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책 다모아' 행사, '책 선물하기 생활화'와 '하루 20분 1년에 12권 읽기' 운동, '도서관·서점 찾기' 운동, '책책폭폭 책 드림 콘서트' 등이 그것이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무려 8천3백여 건에 달하는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가 열린다. 9월 18일에는 광주역 광장에서 광주광역시와 코레일이 함께하는 '제3회 책책폭폭 책 드림 콘서트'가 열리고, 9월 20일에는 '왜 다시 책 읽기인가'를 주제로 서울 정독도서관에서 '독서의 해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독서의 사회적 효용'에 대해 이야기할 이 토론회에는 문용린 독서의해추진위원장을 비롯해 독서·도서관·출판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여한다.

9월 21일에는 독서의 달을 기념해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18회 독서문화상 시상식'이 정독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12 독서의 해' 추진에 공적이 큰 유공자를 선발해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 장관표창 35명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10만 독서마니아 클럽 결성을 목표로 독서동아리 축제를 개최하고,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독서력 향상을 위한 '독서의 해' 사업은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다. 독서 선진국인 영국과 일본, 호주 등이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한국은 최근 7년(2004~2011년) 동안 성인 독서율이 10 퍼센트포인트 하락했다.

문화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성인 독서율은 2004년 76퍼센트에서 2008년 72퍼센트, 2011년 66퍼센트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우리나라 성인 인구 10명 중 4명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책 읽는 시간이 부족하다'(34퍼센트),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33퍼센트)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영상물, 인터넷, 게임 등의 발달로 독서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대변화 반영한 전자출판 육성도 추진

우리나라의 종이책 시장은 2010년 3조8천억원 규모로 매년 평균 2.4퍼센트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책 시장은 2010년 2천억원에서 2011년 3천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50퍼센트 정도 급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최광식 장관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종이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책의 확산이 종이책을 대체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종이책의 향과 재질을 느끼며 묵독(默讀)하는 즐거움과 전자책을 통한 디지털 독서가 새롭게 경험되면서 상호 보완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7월 27일 기존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확대·개편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출범시켰다. 앞으로는 이곳을 중심으로 '우수 전자책 제작 및 유통활성화 사업계획' 등의 다양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G

글·서철인 기자

할미가 옛날이야기 해줄까?

송파어린이도서관,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찾아가는 도서관' 내달 진행

할머니의 무릎에 누워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잠들곤 했던 어른들의 추억을 요즘 아이들에게도 전해 주는 곳이 있다. 서울 송파어린이도서관에서는 다음달부터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찾아가 옛날이야기를 전해 준다. 어린이들에겐 책을 읽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르신들에겐 재능나눔의 기쁨을 안겨 주는 쌍방향 독서 이벤트인 것이다.

송파어린이도서관을 찾은 것은 지난 9월 4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안엔 10여명의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노랑, 주황으로 밝게 칠해진 도서관 내부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낮은 책꽂이가 눈에 들어왔다. 책꽂이에는 전래동화부터 영어동화까지 다양한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송파어린이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2009년 4월 개관했다. 소장하고 있는 책은 1만8천 권에 이른다. 이 도서관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 상시로 운영되고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다. '도깨비감투 어르신의 옛날이야기', '토요 체인지', '책과 함께하는 영화여행', '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등이 대표적이다.

55~70세 봉사자들 두 달간 기본교육

이 중 '도깨비감투 어르신의 옛날이야기'는 도서관이 개관한 이후 3년 동안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할머니의 무릎에 누워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잠들곤 했던 어른들의 추억을 요즘의 아이들에게도 전해 줄 수 있어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은나래 재능기부자'로 불린다. 은나래라는 이름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서 흔히 사용하는 실버라는 말 대신 고안해 낸 것이다.

이경호 기자

송파어린이도서관은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영어 동화부터 전래 동화까지 총 1만8천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건물의 유리 외벽과 아기자기한 실내 인테리어는 마치 동화 속의 장면을 연상케 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송파어린이도서관은 올 들어 지금까지 도서관 내에서 이뤄져 온 '도깨비감투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젝트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012 독서의 해 대표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공모전에서 서울 송파구의 '찾아가는 도서관'을 비롯해 부산 중구의 '보수동 책방골목문화행사', 대구 북구의 '찾아가는 1318 독서아카데미' 등 14개 시·도의 16개의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됐다.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봉사자 1기는 현재 심화교육 이수에 한창이다. 이들은 9월 13일 모든 수업을 마치고 10월부터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찾아가 활동을 시작한다. 1차 교육만 수료하면 됐던 이전까지의 재능기부자들과 달리 이들은 구연동화 테크닉, 민요, 춤사위 등 다양한 심화수업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55세에서 70세 사이의 어르신들이다. 거주지 및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다. 주로 송파구청에서 진행하는 실버 대상 교육, 복지관, 송파문화원 등에서 은나래 독서지원활동가 프로그램을 알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이들이다.

하지만 그냥 재능기부자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봉사자들은 2개월간 기본교육을 받는다. 8회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에는 구연동화는 물론 전통놀이와 민요 등도 포함돼 있다. 아이들에게 다채로운 재미를 주기 위해서다.

"구연동화라 걱정되지만 마음 설레"

송파구 장지동에 거주하고 있는 손정임(60)씨는 지인의 소개로 은나래 재능기부자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평소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손자가 있다 보니 특히 아이들을 위한 활동인 은나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어요. 내일 가락동 혜림유치원으로 첫 실습을 가는데, 2인 1조로 〈똥떡〉이라는 책을 들려줄 예정이에요." 그는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닌 구연동화라 걱정은 되지만 마음이 설렌다"고 말했다.

1차 교육에는 55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는 이들이 생겨 현재는 30명 가량이 심화수업을 듣고 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할머니들로, 할아버지는 3명뿐이라고 한다.

은나래 재능기부자들은 원래 무급 자원봉사자들이다. 하지만 찾아가는 도서관 1기 어르신들은 10~11월 두 달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1기 어르신들은 지난 6월 13일 첫번째 시범수업을 가졌다. 이날 수업에서는 〈손큰할머니의 만두만들기〉 등의 동화를 구연하고 동화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작가와의 만남 자리엔 실버 동화작가인 이가을씨가 참석했다. 송파어린이도서관 정원임 관장은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찾아가는 도서관의 활동에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글·이현민 인턴기자

송파구청

지난 6월 송파구 몽촌경로당에서 찾아가는 도서관의 첫번째 시범 수업이 열렸다. 실버 동화작가 이가을씨가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창작동화에 대해 설명해줬다.

군포·제천·대구·안동서도 옛날이야기 들려줘

송파어린이도서관 외에도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프로그램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할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 요즘 아이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제공해 주어 인기다.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장점이다. 지방의 도서관들 중 이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제천 '기적의 도서관'이다.

'호랑이 담뱃대'라는 이름으로 2004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이 도서관에선 평균 75세의 어르신 29명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 어린이도서관 역시 지난해부터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2인 1조로 하루 4명씩 진행을 맡아 〈팥죽할머니와 호랑이〉, 〈강아지똥〉 등의 이야기를 읽어 준다.

어르신들이 유치원 등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이뤄지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역 내 86개 유치원서 어르신들이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추진해 왔다. 안동시의 국학진흥원과 예산 도서관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을 운영한다.

일러스트 · 신용호

독서마니아 1백50만 '대군' 키운다

온 · 오프라인 독서모임 참여… 10월 27일 첫 '전국 독서동아리 축제'

2012년은 독서의 해, 9월은 독서의 달이다. 9월 한 달에만 정부, 자치단체, 도서관, 학교 등 각지에서 무려 8천3백여 독서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혼자서 집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자그마한 동아리를 만들어 토론의 장을 펴면 독서의 효과는 배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만 독서마니아 클럽을 결성해 1백50만명의 독서마니아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독서 동호인 시대가 열린 것이다.

독서마니아 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4분기에 실시하는 '도서관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필두로 독서마니아 클럽 결성 지원 및 '제1회 전국 독서동아리 축제' 개최,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 추진, 도서구입비 세제감면 추진 용역 등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독서마니아 클럽 10만 개를 결성하고 독서마니아 1백50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오는 10월 27일에는 경기 파주시 문발동 파주출판도시에서 '제1회 전국 독서동아리 축제'도 개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문인단체, 인문학 단체, 사회자연과학 주요 단체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특화된 지역 대표 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공공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독서클럽을 위한 모임 공간을 지원하고 ▲독서클럽 축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과 지방 독서기관,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책 읽는 도시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2012년 9월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은 7백86개. 각 도서관에 개설된 독서클럽은 약 1천5백 개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독서클럽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3천3백49개의 소규모 도서관마다 대부분 독서동아리가 결성돼 있는 데다, 각 중고등학교·대학별로 독서동아리가 결성돼 있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독서동아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친구나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만든 비공식 독서동아리를 합치면 실제 운영되고 있는 독서클럽의 종류와 회원은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온·오프라인상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대표적인 독서클럽은 다음과 같다.

100북스
열린 독서공동체 지향… 11년째 활동

학습독서공동체인 '100북스'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는 독서클럽이다. 특별한 가입절차도 없다. 회비는 영구회비 50만원, 연회비 5만원이다. 후원금은 내고 싶은 만큼 알아서 내면 된다. 주제에는 제한이 없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논쟁, 또는 상업적인 논쟁은 배제한다.

'100북스'는 열린 독서공동체를 지향한다. 2001년 홈페이지(www.100books.kr)를 개설해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이 모임은 경주 100북스, 대구 100북스, 부산 100북스 등 지방 모임도 활성화돼 있다. 이 점을 활용해 남도, 경주, 설악 등 전국을 돌며 독서토론을 갖기도 한다. 2008년엔 몽골 고비사막, 2009년엔 호주로 해외 독서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현영석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김억중 교수, YK경영컨설팅 송윤호 대표, ETRI 이정원 연구원 등이 위원을 맡고 있다. 이 모임의 회원은 2012년 9월 6일 현재 1만3백명이다.

호박회
48년 역사 '장수 클럽'… 격의 없는 토론

역사와 전통이 깊은 대표적인 독서클럽이 고려대학교 호박회다. 호박(pumpkin)이 아니고 호박(虎博)이다. 고려대의 상징인 호랑이(虎)와 박식한 대학생이 되자는 의미의 박(博)을 결합해 지은 이름이다. 1965년 결성, 올해로 48년 역사의 이 클럽은 졸업생과 재학생 구별 없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원들 스스로가 읽을 책을 정하며, 발제, 사회, 서기 모두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격한 토론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교류의 장을 지향한다.

최동호 국문학과 교수, 이두희 경영학과 교수 같은 'OB'들도 참여해 재학생 후배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갖는다. 책뿐만 아니라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갖기도 한다. 졸업한 멤버들은 3개월에 한번, 재학생은 매주 토론을 갖는다. 신입 멤버들은 첫 2학기 동안 출석이 의무적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호박회의 이채령 회장은 "매주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책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누며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인문학 · 사회과학 주제로 주말강좌 운영
'도서관 아카데미' 사업 내년 전국 확대

1백50만 독서마니아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자체 행사였던 '책 다모아' 행사를 펼쳐왔다. 올 들어 전국 공공도서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기부문화 확산을 꾀했으며, 지난 4월 23일 '책의 날'을 '책 드림 날'로 선포하고 이를 2013년부터 정례화해 '책 선물하기' 문화를 정착 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은 모두 독서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을 포함한 주제의 커리큘럼을 갖춘 강좌 형태로 주말(필요시 야간시간대)에 '도서관 아카데미' 사업을 펼친다.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지역 2개 도서관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13년부터 전국 지역 대표 도서관(현재 9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주제를 자연과학, 중장기적으로 통섭형 아카데미로 확대하고 최장 1년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루백쪽읽기당
트위터로 매일 읽은 느낌·생각 공유

'하루백쪽읽기당'이란 독특한 이름을 가진 독서모임은 트위터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2011년 결성된 이 독서클럽의 특징은 완전 개방형이란 점이다. 참가, 토론, 주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회비도 없고 가입과 탈퇴도 자유다. 무슨 책을 읽을지도 자유롭게 알아서 정한다. 이름처럼 '하루 1백 쪽'을 읽기만 하면 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1백 일 동안 매일 1백 쪽씩 읽고 느낌과 생각을 트위터에서 공유한다. 회원 수는 약 1천1백명.

모임의 대표인 안성준 나북스 대표는 "독서를 습관화하자는 모임"이라며 "1백 일씩 3차례 책 읽기를 마친 회원들이 10여 명가량 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회원들은 교사, 주부, 학생, 직장인, 학원강사, 퇴직자 등 다양하다"며 "연령층도 학생부터 40~50대 중년층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1백 일 책 읽기 한번을 마치면 무척 뿌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며 "매일 트위터에서 서로 생각을 교류하며 격려해 주다 보니, 서로 친구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G

글 · 이범진 기자

종이 없는 전자책 · 온라인 유통이 '젊은 피'

출판사 전문화 · 콘텐츠 경쟁력 확보돼야… 생활형 독서 프로그램 필요

조선왕조가 5백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선비들의 독서에서 나왔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 해군의 한 장교는 "이곳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어디든지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출판업계 관계자들은 독서는 한 나라의 지식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독서만이 침체된 출판문화도 살리고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 서울에서 자유로를 따라 북쪽으로 얼마간 달리다 보면 파주출판도시를 만날 수 있다. 출판도시는 3백여 개의 출판사와 인쇄사, 유통사회가 한곳에 밀집된 세계 유일의 출판문화도시다. 시내에 들어서자 음식과 식당가가 장악한 일반 도시와는 분위기부터 사뭇 달랐다. 거리는 깨끗했고 교통은 한산했다. 무엇보다 건물 하나하나가 저마다 개성을 뽐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상 파주북소리 사무총장은 "9월 15일부터 9일간 개최될 '파주북소리 축제' 준비로 출판도시 전체가 바쁘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출판사와 저자, 독자가 한 공간에서 만나 소통하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국내 유일의 지식축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출판도시에서 만난 여러 출판 관계자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출판 전문도시를 가졌고 아시아 최고의 책 관련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출판산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1년 콘텐츠산업 통계'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사업체 수는 2만7천8백여 개이고 관련 종사자 수는 20만3천2백여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05년부터 출판산업 관련 업체가 연 평균 3.9퍼센트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간만은 일정기간 정가제 유지해야"

파주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인 송영만 효형출판사 대표는 "2년 전부터 출판시장이 더욱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라며 "그나마 주로 팔리는 책은 처세서, 자기계발서, 학습서 같은 실용서적이나 베스트셀러 위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독서가 유행을 따르는 나라가 별로 없다"며 "이런 허약한 독서 풍토에서 출판사들이 생존을 위해 당장 팔리는 책에 매달리다 보니까 좋은 책을 기획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은 1년 동안 평균 9.9권, 학생은 24.3권의 독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출판인회의 감사인 주연선 은행나무출판사 대표는 "출판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진 독특한 출판환경의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 출판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출판사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출판사가 많다는 것은 콘텐츠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지만 과다경쟁으로 영세함을 벗어나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도서정가제 문제입니다.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편법이 난무하고 서적의 유통질서가 어지럽습니다. 최소한 신간(新刊)에 대해서만이라도 일정 기간 도서정가제를 지키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대표는 "독서는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인문학 분야의 책을 거의 읽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전자책 시장서 새로운 활력 기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판 도소매업 중 오프라인 도소매업의 매출액은 2005년 7조6천여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7조3천여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온라인 출판유통업 매출액은 2005년 1천3백여억원이었으나 2010년 1조3천여억원을 기록하며 5년간 약 10배의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출판유통업의 성장은 출판산업의 유통구조가 오프라인 도소매업에서 온라인 도소매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출판업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2008년 1천1백여억원이던 전자출판업의 매출액은 2010년 1천9백여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약 27.3퍼센트 성장하였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전자책 규모는 전체 도서 매출의 2~3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기영 한국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단말기인 스마트폰이 3천만대, 태블릿PC가 2백만대 보급되어 있다"며 "구글이 만든 첫 태블릿PC인 '넥서스 7'이 20만원대에 보급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전자책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자책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던 출판사들도 전자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전자책 시장의 확대가 출판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종이사전이 주변에서 거의 사라졌듯이 출판시장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자책이 출판산업 전반의 파이를 키우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판 전문가들은 "현재의 출판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출판사가 자기 전문 영역을 구축하는 특성화 전략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어려서부터 책을 접하고 읽게 하는 '북스타트 운동'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사람들의 일상과 접목할 수 있는 생활형 독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G 글 · 이상훈 기자

출판도시문화재단

파주출판도시는 인간과 자연,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책의 도시다. 기획, 생산, 유통 등 출판산업의 세 요소를 한 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북소리 2012'… 파주출판도시가 들썩 9월 15일부터 9일간 아시아 최대 책 축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파주북소리 2012'가 9월 15일부터 9일간 경기도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다. 파주북소리는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출판계 인사들과 국내외 2백여 개 출판사와 3백여 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치러진다. 축제기간 동안 출판도시 내 1백여 개 건물과 야외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며, 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시와 강연,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대규모 특별전이다. 그중에 '한글 나들이 569'에서는 선조들이 일상에서 사용했던 버선, 부적, 담뱃대 등에 한글이 새겨진 다양한 생활용품을 전시한다.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해 온 한글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다. '추억의 그 잡지' 특별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개화기부터 현재까지의 희귀 잡지가 공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홍콩 등 동북아시아 대표 출판인들이 함께 제정한 아시아출판문화상인 '파주북어워드'가 첫선을 보여, 아시아 출판문화의 역량을 키우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 출판,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석학이 참여하는 강연도 눈길을 끈다. 특히 정약용 탄생 2백50주년을 맞아 다산의 학문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기념강좌와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 교수의 특별강연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축제 기간 중에 출판도시 내 각 출판사 사옥에서 창작 워크숍, 시 낭송, 전시 및 공연이 마련되며,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독자들과 직접 만나 자신의 문학세계를 들려주는 시간도 갖는다. www.pajubooksori.org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대인 119안전센터 대원들은 고된 근무 틈틈이 한 달 평균 두 권씩의 책을 꼬박꼬박 읽는다. 많이 읽는 대원은 7~8권까지 독파한다.

"아무리 바빠도 책 읽을 시간은 냅니다"

광주 대인 119안전센터 대원들, 한달 평균 두권씩 읽어

목숨을 건 화재진압에서 생명을 다루는 재난구조까지 도맡아야 하는 고된 환경 속에서도 독서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의 힐링(Healing)은 물론 자격증 취득 같은 자기계발까지 일궈낸 소방관들이 있다. 바로 지난해 제17회 독서문화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대인 119안전센터 대원들이다. 그 후 1년, 여전히 이들에게 독서는 생활의 활력소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촉매제였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24번지 동부소방서 내 대인 119안전센터. 가지런히 정돈된 소방장비와 반짝반짝 잘 닦인 소방차 등 여느 소방서와 다름없는 풍경이지만, 사무공간 한쪽 책장을 열자 1백여 권의 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소방관련 자격증 수험서에서부터 최근 화제가 된 베스트셀러, 외국 유명소설가의 인기소설, 취미서적, 육아서적까지 다양한 책이 구비된 이 책장은 규모는 작지만 어엿한 이동도서관이다.

첫 시행에 들어간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9안전센터 근무자(58명)와 동부소방서 근무자(119구조대 포함 55명) 등 총 1백3명이 이곳을 통해 빌려 본 책은 약 3천 권. 소방서에서 기록한 도서대여대장에 따르면, 개관 이후 지금까지 한 사람이 한 달 평균 2권, 다독자(多讀者)는 7~8권까지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립도서관서 매달 1백여권씩 빌려와

동부소방서에서 소방교육 및 대외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강혜원(43·여·소방위) 주임은 "인근 시립도서관에서 매월 새로운 도서 1백여 권씩을 대출해 대원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인기가 많은 서적은 재대출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3교대(24시간 근무 뒤 48시간 휴식)로 근무하는 이곳 소방관들은 근무하는 날 출동대기 시간이나 쉬는 날을 이용해 책을 읽는다. 최근 육아서적을 섭렵하고 있다는 김경철(41) 소방교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가 있는데, 정말 잘 키우고 싶고 딸아이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육아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육아를 공부하면 할수록 후배 소방관들을 대할 때에도 좀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되더라"고 털어놓았다.

소방관의 직위체계는 경찰과 비슷하다. 순경에 해당하는 말단 '소방사'에서부터 '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 순으로 올라간다. 소방서장의 공식직위는 소방정이지만, 보통 서장으로 불린다. 또 직위명 대신 '주임', '과장' 식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위험한 환경에서 함께 근무하는 이들은 직위를 뛰어넘어 강한 동료애로 뭉쳐져 있지만, 작은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자칫 서로에게 거칠게 대하기 쉽다고 한다. 또 참사 현장을 자주 목격하다 보니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악몽에 시달리는 이른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는 소방관도 많다.

소방관의 평균수명은 58.8세로 우리나라 공직자 중 가장 짧다. 참고로 소방관 정년은 57세다.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순직하는 경우가 통계에 반영되기도 했지만, PTSD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소방관계자들의 말이다.

"독서가 외상후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

강혜원 주임은 "이곳 동부소방서에서 1·1·1운동을 펼치게 된 것도 독서를 통해 웃음을 잃은 소방관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고, PTSD 극복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방관들은 독서의 도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최장기(32) 소방교는 "책을 자주 읽으니 화제가 많아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다.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서로 추천하기도 하고, 읽은 내용 중에 인상 깊었거나 감동적인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특정 서적이 직원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기도 했다. 강 주임은 "최근에는 소방서 내 여직원들 사이에서 광주 출신 여주인공이 상경해 차도남(차가운 도시남자)과 겪는 사연을 담은 소설이 유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이란다. 남자직원들 사이에서는 유머담을 담은 책이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여행기도 인기가 많은 편이다. 강 주임은 "소방관들은 언제 출동 명령이 내려질지 몰라 점심마저도 바로 옆 식당에서 해결하는 등 소방서 주변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다.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여행자의 책을 읽으면 가슴이 후련한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강혜원 주임과 대원이 119안전센터에 비치된 책장에서 읽을 책을 고르고 있다.

독서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로도 이어진다고 한다. 올해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나영일, 박판교 소방교는 "몇 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계속 공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최근 소방서 내 독서 분위기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대학의 야간대학원에 진학해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최장기(32) 소방교 역시 "나 말고도 우리 소방서에서 야간대학원에 다니는 소방관이 10명 정도 된다"며 "독서와 공부를 장려하는 소방서 내 분위기에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런 변화는 대여서적 목록에서도 드러났다. 시행 첫해 교양서적과 전문서적(소방관련)의 비율이 8대2이던 것이 올해에는 5대5 정도로 전문서적 비율이 높아졌다.

인근 시장상인들에게 이동도서관 개방

김남철 센터장(소방경)은 "직장생활과 배움을 병행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기계발을 하면서 직무능력도 키우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도 독서로 푸는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책이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자주 읽게 된다. 또 남이 읽으면 나도 따라 읽게 된다. 앞으로 독서분위기를 계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소방서는 책을 통해 인근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2010년부터 소방서 내 이동도서관을 인근 시장상인들에게 개방해 현재까지 9백여 권의 도서를 대출했다. 앞으로는 도서 구매 시 동네서점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강문 소방서장은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또 다른 기여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동도서관 운영을 늘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과 사진·남창희 객원기자

헌책방에 가면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부산 보수동 · 인천 배다리 · 서울 신촌 등 전국적인 명성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

반세기 넘는 '전설'… 온라인 서점도 열어

대학가에서도 서점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수동 책방골목은 반세기 넘게 한국을 대표하는 헌책방골목으로 버티고 있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해방 후에 생겼다. 남포동 국제시장 근처 공터에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책이 쌓여 있었는데 상인들이 이 책을 가져다 판 게 시초라고 한다.

이후 한국의 책 구매 문화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52개의 서점이 자리하고 있다. 보수동책방골목번영회의 총무를 맡은 김태형 성문서점 대표는 "1980~1990년대에는 책방골목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게 골목이 막힌다거나 골목 밖까지 줄이 늘어서는 일이 있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참고서를 헌책으로 사서 보는 문화가 사라진 탓이다.

보수동 책방골목의 상인들은 그저 앉아 손님을 기다리지만은 않는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7월에 정식으로 문을 연 온라인 쇼핑몰 '보수동 책방골목 쇼핑몰(bosubookstreet.com)'이 단적인 예다.

2005년부터는 번영회 차원에서 문화행사도 열고 있다. 올해로 9회째인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문의 bosubookstreet.com, cafe.naver.com/bosubook

인천 배다리 책방골목

시낭송회 등 지역문화의 중심 자리잡아

배다리 책방골목은 책을 향한 넘치는 열정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 곳이다. 한때 30여 곳의 책방이 성업했던 골목에 지금은 6곳의 책방이 옹기종기 자리하고 있다. 언뜻 '쇠퇴'한 것 같지만 책방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은 곳임을 알 수 있다.

아벨서점이 단적인 예다. 1973년부터 영업을 해 온 아벨서점은 본점 외에 아벨전시관을 별관으로 두고 전시회, 시낭송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왔다. 아벨서점의 곽현숙 대표는 행사를 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책은 닫혀 있으면 무생물이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다가가서 눈을 맞추면 살아납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여러 명이 함께 읽어 내면 더 크게 살아나겠지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아벨전시관에서 여는 시낭송회는 제법 인기가 많다. 지금까지 56회가 열렸다. 10월에는 양은숙 시인이, 11월에는 함민복 시인이 다녀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매회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전시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한 권의 책' 전시도 흥미롭다. 지금까지 〈조선어독본〉 〈순종장례식도록〉, 조봉암 선생이 쓴 〈우리의 당면과업〉 〈내가 걸어온 길〉 등을 소개했다. 이미 절판돼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을 복사해서 사람들이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책을 단순히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사상이 닫고 건너가는 매개체로 생각한다는 것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의 아벨서점 ☎032-766-9523, 나비날다 http://blog.naver.com/kesimeme

서울 신촌 헌책방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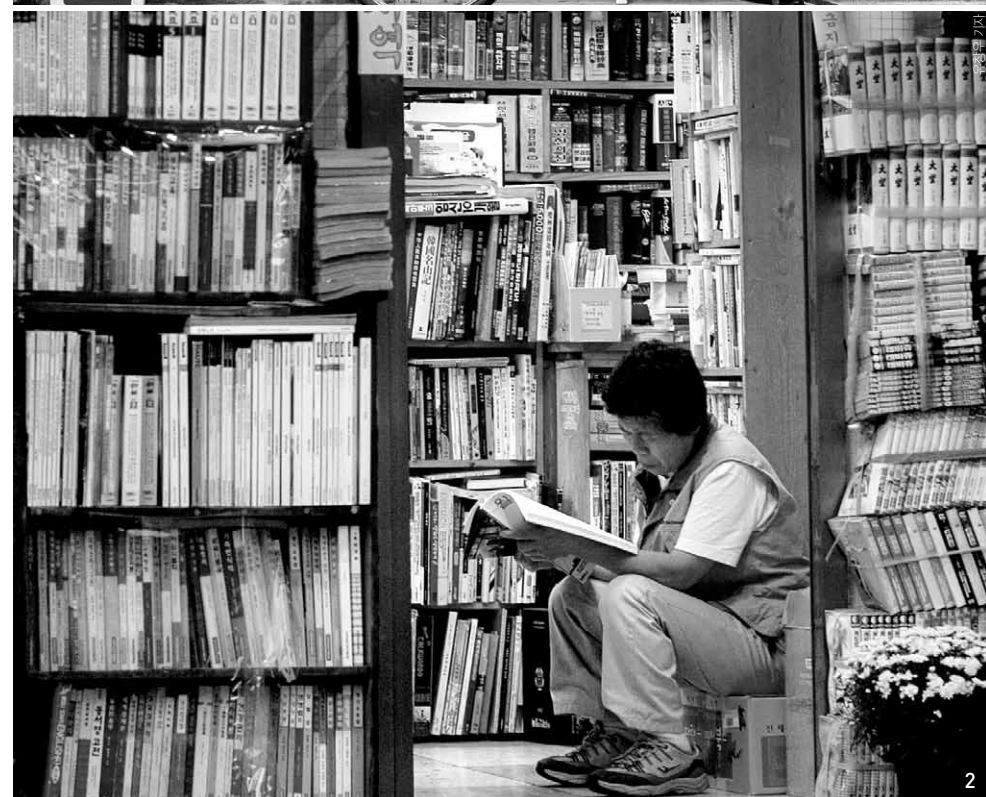
탑처럼 쌓인 책… 살아있는 헌책방의 역사

2012년 9월 현재 신촌에는 총 일곱 곳의 헌책방이 있다. 공씨책방, 정은서점, 숨어있는책, 북오프, 글벗서점, 유빈이네책방, 알라딘중고서점이다. 공씨책방, 정은서점, 숨어있는책은 골목의 터줏대감이고 나머지 네 곳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곳이다.

'헌책방계의 교보문고'를 지향하며 생겼다는 공씨책방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책을 보유하고 있다. 책방 안에 들어가면 탑처럼 쌓인 책더미가 책 좋아하는 이의 가슴을 뛰게 한다. 흔히 '헌책방' 하면 생각나는 전형적인 곳인 셈이다.

유빈이네책방은 2009년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 오프라인으로 자리 잡은 업체다. '어린이 영어책'을 특화상품으로 삼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알라딘중고서점은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낸 오프라인 중고책방이다. 전통의 헌책방부터 기업체가 운영하는 헌책방까지 헌책방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신촌 헌책방 골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G

글 · 하주희 기자

문의 숨어있는책 ☎02-336-3058, 02-333-1041

1 '살아 있는 글들이 살아 있는 가슴에.' 인천 배다리 책방골목의 아벨서점에 가면 살아 있는 가슴을 기다리는 책들을 빠르게 만날 수 있다.

2 원하는 책을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뜻밖의 책을 만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 때로는 적절한 타이밍에 만난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 헌책방은 물건을 사러가기보다는 인연을 찾으러 가는 곳이 아닐까.

3 신촌의 헌책방골목은 새롭고 비싼 것만을 좇는 물신주의가 넘치는 도심에서 자그마한 그린벨트 같은 공간이다.

한강 열린책방

1 양평에 있는 컨테이너형 책방 배꼽마당.
2 서울 행당동 왕십리광장에 가면 공중전화부스를 개조한 무인도서관이 있다.
3 컨테이너를 개조한 낙성대 공원도서관.
4 전기차를 개조해 만든 한강 열린책방.

도서관 맞아?… 상식을 깨고 지식이 왔다

컨테이너 · 전기차 · 화장실 · 공중전화부스 개조한 이색 독서공간

콘크리트와 벽돌로 지은 2~3층 규모의 도심 속 도서관의 고정관념은 잠시 잊어도 좋다. 컨테이너로 만든 이동식 도서관, 한강 공원에서 만나는 전기차 책방, 공중전화부스를 개조한 무인도서관, 심지어 화장실을 개조한 작은 책방까지….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은 물론이고 책을 탐닉하는 독서광이라면 이색 책방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다.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이색 도서관을 소개한다.

책뜨락

공중전화부스로 만든 무인도서관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용객이 줄어든 공중전화부스. 서울 성동구청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전화부스를 활용해 무인도서관 '책뜨락'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청 앞마당과 왕십리광장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책뜨락은 '책 읽는 광장', '지식의 뜰을 만들'이라는 의미로 붙여졌다.

책뜨락은 KT링커스 광진지사가 성동구에 기증한 공중전화부스를 한양대 학생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디자인했고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가 2백여 권의 책을 기증해 탄생했다. 도서관 운영은 전적으로 시민 자율에 맡겼다. 도서 열람 제한이 없고 대출시 부스 안에 설치된 우체통에 전화번호와 대출기한을 적은 대출증을 작성해 넣으면 된다.

성동구청 문화체육과 허현주 주임은 "무인도서관은 휴대전화 보급이 확산되면서 애물단지가 된 공중전화부스를 재활용해 주민들이 책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설치됐다"고 말했다.

한강 열린책방

전기차 개조한 움직이는 미니도서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강 열린책방'을 운영한다. 책방은 친환경 전기차를 개조해 만들었으며 움직이는 이동도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차량 자체를 도서대 모양으로 만들어 마치 큰 책이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온다. 모두 2백여 권의 책을 구비하고 있다.

열린책방에 구비된 '독서 릴레이 노트'에 독후감을 남길 수 있고 읽고 싶은 도서를 적어 넣으면 신규 도서 구입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열린책방은 한강 뚝섬공원과 여의도 한강공원 안내센터 부근에서 만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후 1~6시다. 간단한 신분확인을 통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비가 올 경우 운영되지 않는다.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 김세정 주무관은 "한강공원 열린책방을 통해 야외에서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어 좋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많았다"며 "모든 시민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도서인만큼 시민들께서 소중히 다루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이섬 화장실 책방

발은 저려도 속이 후련한 독서공간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잘 알려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에는 화장실을 개조해 만든 책방이 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신문 또는 책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때가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화장실에서 책을 읽고 나오다가 다리가 저린 경험을 해 봤을 것이다.

남이섬은 이런 점에 착안해 화장실 곳곳에 작은 도서대를 만들었다. 주로 동화책이 비치돼 있다. 남이섬에 이처럼 이색 책방을 만든 계기는 이곳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세계책나라축제가 열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이섬 총무과 오승기 주임은 "화장실 책방을 보고 신기해하는 여행객이 많다. 주로 동화책으로 서재를 메우는데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낙성대 공원 도서관

컨테이너 2개동 재활용한 주민 명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가면 컨테이너를 재활용해 만든 낙성대 공원 도서관이 있다. 31제곱미터, 15제곱미터 규모의 2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동이 가능하다. 큰 컨테이너 동은 주로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서적이 비치돼 있고 작은 동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도서관 형태다. 현대미술작가 배영환씨가 설계했다. 공원 나들이를 나온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며 1일 평균 1백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관악구청 도서관과 정연중 주무관은 "작년 6월 개관한 이래로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주민들이 한 번쯤 들르는 명소가 됐다"고 말했다.

배꼽마당

버스 종점 느티나무 아래 마을 책방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에 가면 컨테이너로 제작한 책방 '배꼽마당'이 있다. 정배2리 버스 종점 큰 느티나무 아래에 만들어진 배꼽마당은 동네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놀이터이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까지 한다. 도시의 큰 서점이나 대형 도서관은 아니지만 시골 아이들은 이곳에서 내일의 꿈을 키운다. 지난 2009년 11월 경기문화재단이 시설지원을 해 만들었고 관리는 마을 사람들이 주축이 된 배꼽마당운영위원회가 맡고 있다. G

글 · 김대현 기자

“평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 즐겨요”

소설가 서영은씨 “나만의 정신적 맥이 생겨 주체적 사유에 도움”

〈기발한 시골 양반 라만차의 돈키호테〉. 작가 서영은씨의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책이다. 그는 “지난해 가을 한 달 동안 돈키호테의 발자취를 따라 스페인 라만차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 기행산문집 〈돈키호테〉를 집필 중”이라며 “선지자적 인물이자 길 위의 전사였던 돈키호테의 삶과 인생을 통해 각자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집필실을 겸한 서재 한편의 컴퓨터 모니터에는 스페인 라만차 지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돈키호테 관련 서적들 외에 여러 권의 성경과 문예지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늘 새롭다”며 미소 지었다.

서재 벽 3면의 책장에는 ‘신구문화사’, ‘을유문화사’, ‘정음사’ 등에서 나온 오래된 문학전집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주인의 독서습관이 궁금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집중적으로 책을 읽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정한 맥락을 따라 읽는 걸 좋아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를 즐기죠. 상당히 능동적인 독서를 하는 셈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나만의 정신적인 맥(脈)이 만들어져 주체적인 사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서경리 기자

서영은씨는 1983년 이상문학상 수상작 〈먼 그대〉의 작가이다. 서울 평창동 자택에 있는 그의 서재 겸 집필실은 문학전집과 각종 문예지로 가득 차 있다.

“앞으로 치유를 위한 글쓰기 수업 진행”

1960~198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기성세대에게 전집류 독파는 그리 낯설지 않은 독서법이다. 그는 “부모님께서 책 읽기 좋아하는 성품을 물려준 덕분에 영혼의 그릇을 키울 수 있었다”며 “책을 통해 세상을 여행하고 탐구하다 보니 고정관념이 없어지는 대신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독서 덕분에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밝고 능동적인 성장기를 보낼 수 있었다고도 했다.

“수줍음이 많았던 여학교 시절 우연히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를 읽고 흠뻑 매료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 언급된 조이스, 카뮈, 사르트르, 도스토옙스키, 헤세, 엘리엇 등의 수많은 문학작품을 탐독하게 됐고, 작품 속 주인공들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독서 덕분에 ‘나 혼자만’이라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장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성행하고 IT 문화가 범람하면서 요즘 청소년들의 독서는 산발적이고 단세포적이다. 부모세대와 달리 전집류를 붙들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수동적인 독서로는 창의력을 키울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에 “능동적인 독서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 대한 분노나 증오 등의 감정을 잠재울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글쓰기’는 자기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는 치유를 위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G

글 · 서철인 기자

“서점은 내 놀이터… 카페 가듯 놀러가죠”

이원복 덕성여대 명예교수 “잠자기 전 책 읽는 시간 너무 행복”

〈먼 나라 이웃나라〉의 저자 이원복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독서를 ‘놀이’, 서재와 서점을 ‘놀이터’로 표현한다.

“잠실 교보문고는 내 놀이터예요. 온라인으로 책을 사면 재미가 없어요. 책방에 놀러가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 번 가면 10만원어치씩 사오죠. 잠자기 전에 책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한 손에는 책을, 한 손에는 위스키 한 잔을 들고 침대로 가죠. 비스듬히 기대어 위스키 홀짝이면서 책 읽는 그 맛! 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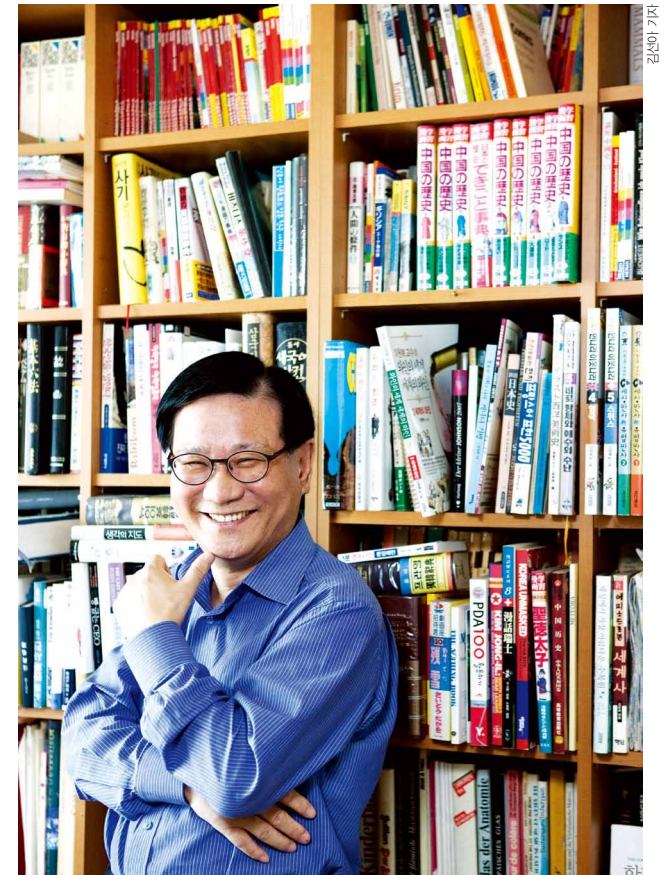
이 교수에게 독서는 일상이다. 올 12월 출간 예정인 스페인 편을 끝으로 〈먼 나라 이웃나라〉 15권을 완간하는 그에게 독서는 책 집필에 꼭 필요한 자료수집 과정이기도 하다. 〈먼 나라 이웃나라〉 집필을 위해서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지리와 국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만큼 독서의 양과 분야도 방대하다.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이 교수의 자택 서재에는 다양한 국적의 책이 인종 전시장처럼 섞여 있다. 중국서적부터 일본만화, 독일서적 등이 그가 펴낸 전작들을 대변해 주는 듯하다. 그는 〈먼 나라 이웃나라〉 한 권을 집필하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는다. 해당 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은 물론 그 시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야사도 찾아 읽는다.

“독서는 사고의 확장을 위한 도구”

이 교수의 독서 성향은 ‘잡독’이다. 추리소설이든 고전이든 만화든 닥치는 대로 읽는다. 지금 그는 집필에 필요한 책 외에도 〈세계 악녀전〉, 일본 추리소설 〈스트로베리 나이트〉, 최인호 장편소설 〈공자〉, 〈역사를 바꿔버린 스캔들 이야기〉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동시다발로 읽고 있다. 이 책 읽다가 지루해지면 저 책으로 옮겨간다. 자료에 필요한 독서냐, 재미를 위한 독서냐에 따라 독서법이 달라진다. 자료수집을 위한 독서는 발췌독을, 재미를 위한 독서는 통독을 한다.

“재미없는 책을 왜 읽어요?”라는 그는 ‘내 인생의 책’으로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두 도시 이야기〉를 꼽는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책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줬어요. 학원사 판으로는 수십 번 읽었고, 얼마 전에도 다시 읽었죠. 내가 읽은 소설 중 가장 완벽한 소설 구조를 가진 것 같아요. 그 안에 휴머니즘과 복수의 공허함도 녹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뮤지컬로 공연 중인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는 희생정신의 아름다움을 그린 소설이죠. 프랑스 혁명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기 위해서 기독교 문화의 희생정신을 끌어들였는데, 이 책도 아주 재미있어요.”

김선아 기자

이원복 교수의 자택 서재에는 다양한 국적의 책이 만화 〈먼 나라 이웃나라〉를 보듯 골고루 섞여 있다.

이 교수는 독서를 ‘사고의 확장을 위한 도구’라고 말한다. 영상물에 익숙한 사람은 상상력의 한계가 있지만, 독서는 무한한 상상을 통해 사고력을 확장시킨다는 것. 그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사고력이 확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G

글 · 김민희 (톱클래스 기자)

'책 읽는 나라'의 국민은 행복합니다

독서의 해에 펼쳐질 정책적 유산이 미래 문화강국 토양 되길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전국에서 8천3백여 건의 독서 관련 행사가 열린다고 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2007년) 이래 최대 규모의 행사 외형이다. 이 수치만 보면 대단한 독서강국이라도 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서 생태계 곳곳에서 들리는 경고음이나 일상의 체감에서 확인되듯, 개개인의 독서 생활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갈 길이 아직 멀다. 여기에는 '생활 속에 스며드는 독서정책'의 부족도 한몫 한다.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독서율은 1994년 86.8퍼센트에서 2011년 66.8퍼센트로 20퍼센트포인트나 감소했다. 도서관 이용률도 2008년 33.3퍼센트에서 2011년 22.9퍼센트로 대폭 하락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가계 월평균 서적구입비는 2011년에 2만5백70원으로 2003년 대비 22퍼센트 줄었다. 또한 가계 소비지출 총액에서 서적구입비 비중은 2003년 1.52퍼센트에서 2011년 0.86퍼센트로 반감되었다.

즉 국민 독서율과 도서관 이용률, 도서구입비 절대액 및 지출 비중 모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소득 증가, 대대적인 도서관 증설, 독서 관련 법제 정비 등과는 상반된 이런 현상의 원인은 몇 가지로 집약된다.

출생률 감소, 영상·오락·인터넷 콘텐츠 중심의 다매체화 및 휴대용 미디어의 발달, 생존경쟁의 가속화에 따른 시간적·정신적 여유의 박탈 등이 그것이다. 한편에서는 독서 양극화(소수의 열독자와 다수의 책맹(冊盲) 및 준책맹으로의 분화)와 지식정보 격차의 심화 또한 우려되고 있다.

범사회적인 독서 친화적 환경 마련해야

이와 같은 독서인구와 도서구매력의 감소는 지식기반 경제의 토대인 출판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도서를 기획-집필-편집-제작-유통하는 가치사슬이 부식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출판시장의 침체는 창작(저작)에 전념할 수 있는 저자군의 퇴출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재생산 구조를 협애화시키며, 이미 상당수 출판사-유통사-서점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종국적으로 독자는 모국어로 된 다양한 양서를 접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독서 생태계와 그 원천인 출판의 선순환 구조 정립이 시급하다.

국민 누구나가 책을 가까이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범사회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영역이 합심해 독서 친화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독서권(책 읽을 권리)이야말로 변화 속도가 빠른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인식 아래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을 통해 독서진흥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사무의 일부로 업무분장된 독서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가칭 '독서진흥과')을 신설해야 한다.

독서 동아리·독서 모임 활성화 도와야

아울러 ▲독서문화진흥법 및 기본계획을 선언적 '권장' 수준에서 구체적 '기준' 제시로 진화시키는 일 ▲가계 도서구입비 부담의 경감을 위한 개인 소득공제 제도 마련 ▲각급 도서관의 국내도서 구입비 증액 ▲독서 및 출판시장 생태계의 공존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실현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인 삶의 터전에서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만족도가 높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광역 및 기초단체 차원의 독서진흥조례를 제정하고 독서담당 직제를 신설해야 한다.

시민과 도서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독서진흥 추진기구를 운영하고, 독서 동아리와 독서 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출판사와 동네서점 육성(지역서점 상품권제도 도입)과 독서 강연회 및 북콘서트 개최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소외계층 및 독서 장애인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자원활동 조직 ▲새 책을 기증하는 '책 나눔 센터' 운영을 통해 공동체의 온기와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며 소외계층의 자존감을 높이는 '공존의 박동'을 만들어야 한다.

생업의 현장에서 책 읽는 직장문화를 일궈야 한다. 우선 기업과 직장, 병영 등에서 ▲일과시간 중 10~30분 정도를 할애하여 구성원 모두가 책을 읽는 '독서시간'을 만들고(사내 방송으로 직원들이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 낭독하기 등을 곁들이며) ▲서가를 만들어 신간과 명저를 구비하여 제공했으면 한다.

경기도 파주 헤이리에 있는 북카페 풍경. 독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 스며드는 독서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

정부는 직장 도서실 운영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도서구입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개별 직장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도서구입비를 보조하거나 각종 기념일과 생일날에 도서상품권을 선물하여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여가선용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학교교육은 아이들을 질식시키는 입시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독서 중심의 학교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지름길도 결국은 독서에 달려 있다.

따라서 초·중·고교에서는 수업 시작 전 일반 도서를 '아침 독서 시간'에 10분 이상 읽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독려해야 한다(현재는 학교장 재량). 또 교실마다 학급문고를 비치해 도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사서교사 배치를 통해 선진국들처럼 교과 연계 독서, 독서토론 수업 등으로 발표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교육정책이 요구된다.

청년들의 인문교양 함양을 위해서는 ▲기본 교양도서를 읽어야 대학 졸업이 가능하도록 대학교육 정책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무교육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1년에 한 권씩 '소중한 내 책'을 서점에서 선택·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도서 바우처' 제도가 신설되길 바란다.

지하철역·편의점도 도서 대출·반납에 이용

공공도서관은 관외 서비스 혁신으로 이용자 및 장서 이용률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 도서관을 찾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하철역, 24시간 편의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손쉽게 도서대출(신청)과 반납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할 일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책에는 지식과 문화, 창의력, 공감과 소통의 힘이 온축되어 있으며, 독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낱장의 페이지들이 모여야 한 권의 완전한 책이 되듯,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놀라운 힘이 '책 읽는 나라' 만들기에 있다. 독서의 해가 남길 정책적 유산이 미래 문화강국의 토양이 되길 바란다. G

글·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동해안·경춘선·섬진강에도 자전거 달린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총 9백31킬로미터 새로 조성

지난해 10월 개통한 남한강 자전거길을 찾은 사람이 3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문화의 확산을 계기로 전국적인 국토종주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동해안(7백20킬로미터), 경춘선(31킬로미터), 섬진강(1백80킬로미터) 3개 노선, 9백31킬로미터의 자전거길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새롭게 조성될 동해안, 경춘선, 섬진강 자전거길은 해안일주형, 생활밀착형, 자연체감형 등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푸른 바다와 함께하는 동해안길, 추억과 낭만의 경춘선길, 자연과 스토리가 있는 섬진강 자전거길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조성하겠다"며 "기존의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이어 자연과 문화가 살아 있는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새로 조성되는 자전거길에도 종주 무인인증센터를 설치하고, 국토종주 인증수첩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이용자들이 즐겁게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 테마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특성화한 명품 자전거길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7백20킬로미터)
고성 통일전망대~부산 을숙도 국내 최장 노선

동해안 자전거길은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의 종착지인 부산 을숙도를 잇는 국내 최장의 자전거길이다. 고성에서 부산까지 이어진 아름다운 해안도로와 주변 경관이 빼어난 옛 국도를 활용하여 총연장 7백20킬로미터 구간을 끊기지 않게 연결할 계획이다.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동해안 자전거길은 금빛 모래가 펼쳐진 1백20여 개소의 해변 길을 지나며, 관동팔경 등 9개소의 아름다운 정자를 만날 수 있다. 또한, 경포 송림 산소길 등 12개소의 소나무 숲길에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 구룡포항·강구항 등 92개소에 달하는 항구와 어촌 마을을 지나면서 다양한 어촌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름다운 해안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항제철 야경 경관길,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탈바꿈한 울산 태화강변 자전거길, 화려한 도시해변을 지나가는 부산 광안리·해운대 자전거길을 만날 수 있다. 동해안 자전거길이 조성되면 인천 정서진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6백33킬로미터의 국토종주 자전거길보다 1백여 킬로미터가 더 긴 새로운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탄생한다. 권역을 나누어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춘선 자전거길(31킬로미터)
옛 경춘선 활용해 추억의 자전거길로 재탄생

경춘선 자전거길은 지난 2010년 12월 경춘선 복선 전철화로 폐선되어 방치된 옛 철길을 활용해 조성할 예정이다. 경춘선의 시작점인 성북역에서 북한강 자전거길과 만나는 마석역까지 총연장 31km 구간의 자전거길이 완성되면, 지난해 10월 개통된 남한강 자전거길, 금년 말 개통 예정인 북한강 자전거길에 이어 폐철도 부지가 아름다운 자전거길로 탈바꿈하는 세 번째 사례가 된다.

경춘선 자전거길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에 주거단지와 대중교통시설, 대학시설, 지역문화시설이 밀집해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다. 이 자전거길은 별내·평내지구 등 7개 주거단지와 퇴계원역·금곡역 등 9개 전철역사가 인접해 있어 통근과 쇼핑용도로 지역 주민

조선DB

2015년까지 동해안 해안도로, 경춘선, 섬진강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9백31킬로미터가 새로 조성된다. 4대강 자전거길을 포함해 전국을 자전거로 일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조성 완료
조성 중
2019년 준공 예정

DMZ 자전거길
경춘선 자전거길 (31km)
북한강 자전거길 (150km)
동해안 자전거길 (720km)
서해안 자전거길
남한강 자전거길 (132km)
새재 자전거길 (100km)
금강 자전거길 (146km)
낙동강 자전거길 (389km)
섬진강 자전거길 (180km)
영산강 자전거길 (133km)
남해안 자전거길

고성, 강릉, 춘천 신매대교, 춘천 의암댐, 가평 대성리 오토캠핑장, 아라 한강갑문, 아라 서해갑문, 팔당대교, 능내역, 북한강 철교, 양평군립미술관,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충주댐, 충주 탄금대, 수안보 온천, 이화령휴게소, 문경 불정역, 상주 상풍교, 상주보, 안동댐,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양산 물문화관, 낙동강 하굿둑, 포항, 경주, 세종보, 대청댐, 공주보, 백제보, 익산 성당포구, 금강 하굿둑, 섬진강댐, 향가유원지, 메타세쿼이아길, 횡탄정, 화개장터, 태인 체육공원, 담양댐, 담양대나무숲, 승촌보, 죽산보, 느러지 관람전망대, 영산강 하굿둑

서울, 수원, 경기, 강원, 원주, 천안, 충남, 충북, 청주, 대전, 경북, 대구, 군산, 전주, 전북, 광주, 전남, 목포, 경남, 부산, 남해, 제주

용두암, 사라봉, 김녕해수욕장, 거북이등대, 협재 해수욕장, 성산 일출봉, 송악산, 중문 관광단지, 월드컵 경기장, 제주 민속촌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자료 행정안전부

조선DB

가로수 사이로 시원하게 뻗은 낙동강 자전거길을 달리는 시민들. 새로 조성되는 3개 노선의 자전거길도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다.

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육사, 서울여대, 서울과기대 등 7개 대학이 주변에 산재해 있어 학생들의 통학길로도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남한강 자전거길뿐 아니라 현재 조성 중인 북한강 자전거길로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져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용 확대의 또 다른 큰 축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예전에 기차가 다니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폐철도, 간이역사(화랑대·금곡), 터널(어룡·마치)들은, 안전시설을 보완하여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옛 추억을 느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추억의 길'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경춘선 총 31km 구간을 경기구간(25킬로미터, 구리~남양주), 서울구간(6킬로미터, 성북역~구리 시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우선 경기구간부터 추진한다.

섬진강 자전거길(1백80킬로미터)

전북 임실~전남 광양 자연체감형 경관도로

섬진강 자전거길은 전북 임실 섬진강댐에서 시작하여 전남 광양 배알도 해수욕장까지 총 1백54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이다. 섬진강·지리산 권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남도를 흐르는 이야기거리·즐길거리를 담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체감형 자전거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섬진강구간은 섬진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으로 자전거길이 일부 조성했으나, 단절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쉼터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기존 도로를 자연스럽게 리모델링하여 꽃길과 차와 자전거,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경관도로'로 새롭게 탈바꿈할 계획이다.

수달 서식지가 있는 섬진강 제방길은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흙길·잔디길을 그대로 살리면서 기존의 가로수 터널 사이로 자전거로 달리면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4월에 개통된 영산강 자전거길과도 연결하여 총연장 3백13킬로미터에 이르는 노선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자전거를 타고 목포에서 출발하여 광주, 담양을 거쳐 광양까지 남도 지방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구석구석 즐길 수 있게 된다. 화개장터·토지마을 등 인근 하동지역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영·호남 지역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

글·이상흔 기자

축제를 준비 중인 황재관 부산시 북구청장

“영남 제일 구포나루 옛모습 구경 오세요”

낙동강변에 위치한 부산시 북구 화명생태공원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수변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년여 전만 해도 폭우가 쏟아지면 각종 쓰레기가 떠다니는 상습침수지역이었던 화명생태공원에서 오는 10월 5일부터 사흘간 북구청 주최로 잃어버린 강 문화를 되살리는 구포나루대축제가 열린다.

“화명생태공원에는 잔디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 9종 31면이 있습니다. 또 산책로, 생태탐험 자전거길, 나루터 덱, 생태체험학습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부하여 서부산권 주민들의 레포츠와 휴식, 자연학습장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황재관 부산시 북구청장은 낙동강 하류의 상습침수지역이던 화명지구가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화명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낙동강변을 따라 길이 5.4킬로미터, 41평방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조성된 화명지구는 2010년 9월 10일 4대강살리기 사업 구간 가운데 가장 먼저 준공했다.

“특히 지난해 화명생태공원 안에 개장한 화명야외수영장은 ‘워크파크급’의 시설에다 요금도 저렴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유수풀과 유아물놀이장까지 만들어져 11만6천여 명이 이용했지요. 이는 지난해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이용객입니다.”

황 구청장은 화명생태공원이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으로 활용되어 ‘사계절 레저공간’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공원 안에 수상계류장을 조성중인데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4일간 화명생태공원에서는 시민생활과 한층 가까워진 강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제1회 낙동강 문화 대축제가 열렸다. 낙동강 대축제를 주최하는 북구는 올해 낙동강 대축제의 명칭을 ‘제2회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대축제’로 바꾸어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다.

황재관 북구청장은 낙동강변의 화명생태공원을 강 문화를 되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체육 중심지로 활용하고 있다.

제1회 구포나루대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열린 구포나루대축제는 우리 구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해 축제는 낙동강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아우르고 구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행사로, 연인원 약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인데다 준비기간이 짧아 행사 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인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국제적인 강(江) 문화 축제로 발돋움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원동력은 많은 구민의 참여와 문화에 대한 관심, 애향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구포나루대축제의 명칭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축제의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낙동강의 3대 나루터’ 중 하나인 구포나루터를 테마로 하고자 축제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대한민국 대표 강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 화명생태공원은 강 문화를 되살리는 중심지가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1회 낙동강 문화 대축제. 올 10월에는 이름을 바꿔 제2회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대축제가 열린다.

구포나루터는 상주의 낙동진나루터, 합천의 율지나루터와 더불어 낙동강 3대 나루터로 불리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삼세조창인 남창으로 군량미를 운송·보관하는 중심 역할을 했고, 조선 말기에는 하루 관용선과 상선 등 1백여 척이 운항하는 영남 지역 제일의 유서 깊은 나루터였습니다.”

구포나루대축제를 찾으면 어떠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을까요.

“황포돛배, 조창과 주막, 그리고 옛 모습의 구포장터를 재현하고 전국의 보부상, 세계 각국 거상들이 구포장터를 찾아오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낙동강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도전! 낙동강을 건너자’란 행사가 시도되고, 황포돛배 체험, 보트 체험, 가족사랑 자전거 축제, 두리하나 건강 마라톤대회 등을 비롯해 각종 전시·공연, 참여체험, 향토음식 특별전 등 3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구포나루를 되살리기 위한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

“우리 북구는 경부선 철도 구포역, 김해공항,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바로 진·출입하는 부산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구포나루터를 중심으로 구포역, 구포시장, 화명생태공원, 화명수목원 등과 연계해 생태와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북구의 대표적 관광벨트 조성사업인 ‘구포나루터 복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포나루터 복원사업은 ‘부산광역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에 의해 약 2백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대형선박 계류장, 구포나루터 역사관, 황포돛배 전시 및 체험시설 등이 앞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구포나루터가 복원되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낙동강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어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구의 ‘따뜻한 행정’도 눈길을 끕니다. 전국 최초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수급자가 가장 많아 사회복지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약 6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통합사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물망 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해 월 80가구(연간 1천 가구)의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자 하는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 올해에도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의 대표축제, 우수축제는 물론 세계적인 강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키워내고 싶습니다. 또한 구포근린공원 내 솔로몬 로파크 건립과 금곡동 지식산업 센터를 조속히 건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동화명대교와 덕천~양산 도로를 연결하는 화명 IC 설치, 산성터널과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창의적 우수 인재 육성, 저소득층 자립기반 강화, 녹색도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G

글·박경아 기자

세계적 문화명사들, 한국에서 길을 묻다

문화소통포럼·고궁 순례… "한국은 동서양 문화소통 이어줄 국가"

"한국 문화가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지고 재평가되길 바란다."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문화소통포럼 2012에 모인 해외 문화계 주요인사들이 한 말이다.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14개국에서 온 인사들은 한국 문화를 함께 탐방하고 한국의 '문화소통'에 대해 토론을 했다. 일정을 마친 후 이들은 "귀국하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겠다"고 했다.

지난 6일 열린 문화소통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해외 문화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9월 4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 문화소통포럼(CCF, Culture Communication Forum)에 참석해 한국의 '문화소통'에 대해 논의했다. CCF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이 개최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열린다.

문화소통포럼 2012의 참가자는 이름들이 쟁쟁하다. 도미니크 볼통 프랑스 국립소통과학연구소장과 헤르만 파르칭어 독일 베를린 프로이센문화재단 이사장, 호주의 방송진행자 제럴딘 두그, 캐나다 이민 1.5세대로 독립다큐멘터리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는 이선경 에이샤프로덕션 대표, 저스틴 앨버트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이사장, 프랑스 최고 요리명장 자격인 MOF 보유 요리사 에릭 트로숑, 토머스 렌츠 미국 하버드대 미술관장이 참석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한식에 가장 많은 찬사

이 밖에도 중국 전통극 배우 장쥔, 고르균 타네르 터키 이스탄불 국제문화예술재단 대표, 일본 피아니스트 나카무라 히로코, 멕시코 화가 페르난도 킨테로, 쑤허완 아부 싱가포르 탁수갤러리 대표 등도 함께 자리했다. 예카테리나 톨스토이 러시아 야스나야폴랴나 박물관 관장도 참가했는데 예카테리나 관장은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고손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문화특보인 블라디미르 톨스토이의 부인이다. 한국인으로는 서울대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가 참가했다.

6일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은 전세계 문화소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한 도미니크 볼통 소장은 "세계화 시대에는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이 중요해진다"며 "분단과 식민을 경험한 한국은 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소통을 매개할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이선경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은 "이민자와 탈북자가 나날이 느는 상황에서 한국은 다양한 종교와 언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이 문화 다양성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경험해 본 한국문화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음식에 대해 가장 많은 찬사를 표했다. 토머스 렌츠 하버드 미술관 관장은 "다른 나라 국립박물관은 개방된 저장고 같은 느낌인데 한국 국립박물관은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고, 또 관람객이 예술작품과 긴밀히 연결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이야말로 예술과 사람의 상호작용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최광식 장관 해설 들으며 '창덕궁 달빛기행'

중국 곤극 배우 장쥔 역시 "어제 점심에 김치스파게티를 먹으면서 '김치는 태양이다'라는 문구를 봤다"며 "전세계인이 김치를 맛볼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인데 나도 이런 정신으로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곤극을 알리겠다"고 했다. 곤극은 6백여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중국의 전통극이다. 2001년에 유네스코로부터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 전인 4일과 5일에 국립중앙박물관과 종묘, 가구박물관, 리움미술관 등을 방문했다. 특히 4일 저녁에는 창덕궁을 거닐었다. '창덕궁 달빛기행' 체험이었는데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창덕궁에 대해 해설했다. 인정전과 궁궐내 연못 부용지를 둘러본 후, 연경당에서는 궁중무용과 가야금 공연을 관람하며 한국 전통 궁궐 문화의 멋을 함께 즐겼다.

참가 인사들은 고궁의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저스틴 앨버트 내셔널트러스트 이사장은 창덕궁을 거닌 후 "왜 전에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너무 아름답고 정감 있다. 한국은 음악도, 음식도 너무 멋있는 곳이다"라고 했다. G

글·하주희 기자 / 사진·서경리 기자

도미니크 볼통 프랑스 소통과학연구소장

"개방성 가져야 세계가 한국문화 재평가"

도미니크 볼통 프랑스 소통과학연구소장은 소통학의 전문가로 유명하다. 볼통 소장은 지난해 4월에 나온 〈불통의 시대 소통을 읽다〉에 이어, 이번 방문에 맞춰 〈또 다른 세계화〉라는 책을 냈다. 이 책에는 한국에 대한 그의 생각이 독자적인 장에 기술돼 있다.

이번이 세번째 한국 방문이라고 들었습니다. 4일 밤에는 창덕궁을 걸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인도, 중국, 일본에서 영향을 받아 공동의 문화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문화 다양성이 살아 있는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을 거쳤는데도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단된 국가로서 슬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현대적인 문화가 많이 살아 있다는 측면도 인상적이었어요.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나라에서 소통이 더 잘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넷은 유용한 수단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의 소통수단에 불과합니다. 인터넷은 결코 주요한 소통수단은 될 수 없어요. 주요한 소통수단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입니다. 컴퓨터가 전세계에 75억개 있다 해도 이는 기술일 뿐이지 소통과 직결되지 않아요.

소통을 잘하는 지도자로 누가 있을까요.

서양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보자면 오바마 대통령이 소통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대적 방식과 이질적이긴 하지만 교황도 인상적입니다. 영원한 영국 왕권의 상징인 여왕도 마찬가지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지도자로는 달라이 라마를 들고 싶군요.

최근 한국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타인과 소통을 안 하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제가 해법을 갖고 있진 않지만, 오늘날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서양 국가에서도 고독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0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도시는 해방의 장소인 동시에 고독의 장소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슬픔에 대해 서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지내고 혼자 불행해져요.

지난해 어느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를 향해 더 많은 말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데 문화의 소통, 알림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재평가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만 강조하지 말고 다른 문화와 공존하면서 개방성을 가져야 해요. 한국의 문화를 알아주기만을 강조하지 말고 타문화를 이해하고 투영할 때 한국 문화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남강과 그 위의 촉석루. 그 아래쪽에 논개가 몸을 던졌다는 바위 의암이 보인다.

경상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진주시. 남강을 품은 도시 진주에서 보낸 주말은 가을 문턱에서 느낄 수 있는 온갖 정취를 선물해 줬다. 은은하면서도 교교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남강의 아름다움과 촉석루가 들려주는 전설을 들으며 산책을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연꽃 핀 강주연못에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는 가족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아침에 다시 만난 남강은 밤의 정취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지난밤 보았던 촉석루의 야경은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남강의 아침은 전혀 새롭게 다가왔고 촉석루 또한 화려하고 교태 있는 밤의 풍경과 달리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남강의 절벽을 휘감고 있는 진주성은 강건해 보였다.

총 길이 1천7백60미터의 진주성곽은 고려 고종 28년(1241년) 창건된 이래 외적과 수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오히려 단단해졌고 수많은 전설을 남겼다. 전사(戰史)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3천8백여명의 군사로 2만명이 넘는 왜군의 침략을 막아낸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이다. 하지만 이듬해 6월에는 10만명의 왜군이 다시 이곳을 침략, 치열한 전투 끝에 7만명의 민·관군이 모두 최후를 맞은 비운의 성이 되기도 했다.

촉석루의 아름다운 야경. 매년 10월 초가 되면 이곳에서 남강유등축제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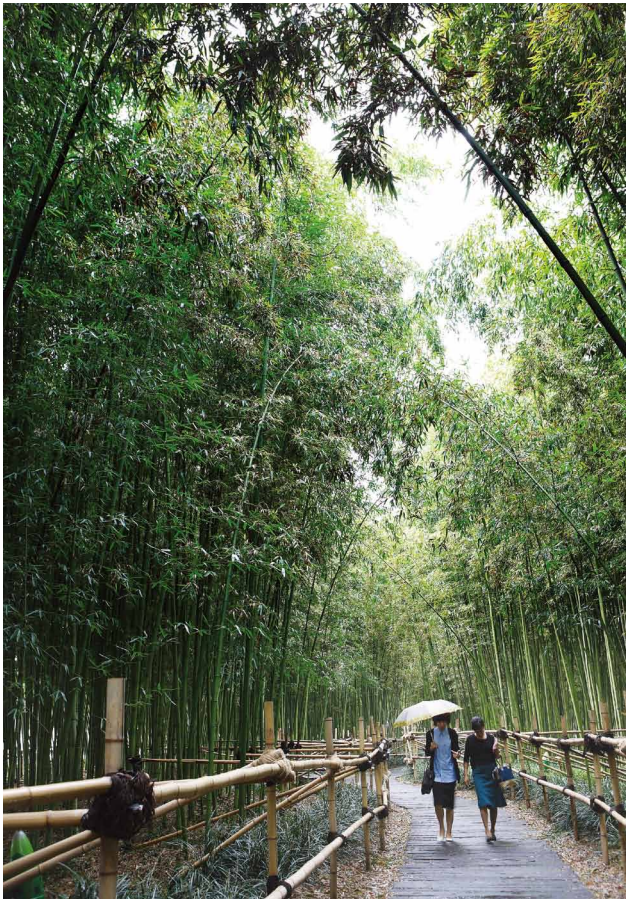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인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바로 임진왜란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이 군사 신호로 풍등을 날리며 남강에 등불을 띄운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매년 10월이면 남강과 진주 시내 일대를 찬란하게 밝히는 유등축제에 3백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다. 올해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보름 동안 열린다.

성벽 위에 우뚝 솟은 촉석루는 꼿꼿한 선비의 기상을 닮았다. 배롱나무 붉은 꽃이 어룽대고 주렁주렁 열매 달린 모과나무 가득한 촉석루는 진주의 상징이기도 하다. 영남 제일의 명승지인 이곳은 전쟁 때 장군들의 지휘소로 사용됐고 평상시에는 선비들이 아름다운 남강의 풍경을 즐기며 시를 읊던 풍류의 성지였다.

촉석루에 오르면 성 아래로 흐르는 남강의 수려함이 한눈에 들어온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임에도 바닥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 '촉석루'라는 이름은 강가에 돌들이 쭝긋쭝긋 솟아 있는 데서 유래했다는데 그 바위 중 하나가 바로 '의암'이다. 이곳에 그 유명한 '논개'의 전설이 얽혀 있다. 왜군이 침략했을 때 적장의 몸을 껴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의롭고도 슬픈 기생 논개가 그 주인공이다.

성벽 위 촉석루 선비의 기상 닮아

논개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안다지만 의암과 그 아래 남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노라면 그의 이야기는 소름이 돋을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종교보다 깊은 거룩한 분노로, 사랑보다 강한 정열로 죽음에 입맞춤했던' 논개는 변영로의 시 〈논개〉 속에서, 만해 한용운과 고은 시인의 시 속에서 지금도 숨을 쉰다.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은 멋과 예술을 아는 기생들을 만나 화려한 교방문화를 만들어 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옛 기생을 그저 '노는 여자'쯤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다. 일제 강점기 때 발간된 〈조선시보〉에서 일본인 기자가 바라본 기생은 '북평양 남진주'였다.

촉석루 맞은편 대숲 산책길. 촉석루와 남강을 감상하기 좋은 곳이다.

둘레 6백미터의 너른 강주연못. 산책용 데크가 잘 정비돼 있다.

평양 기생인 계월향과 진주 기생 논개를 지목한 것이었는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자 천민이었던 그들을 통해 절개와 풍류를 본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고 예술가였다. 비록 교방문화가 강점기에 밀려 들어온 유곽의 창기들로 인해 본질이 쇠퇴하고 결국 사라졌지만 진주에서만큼은 천년을 이어 내려온 교방문화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진주 교방문화는 교방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교방(敎坊)은 고려·조선 시대 기녀(妓女)들을 중심으로 하여 노래와 춤을 관장하던 기관이다. 기녀들의 교방춤과 노래는 사라졌지만 일부 예술인들이 그 춤을 전승 발전시켜 왔다.

또 교방음식문화도 전해져 내려온다. 진주 교방음식은 교방청의 기생들과 함께 가무와 술이 곁들여지는 각종 연회음식으로 조선 중기 음식문화의 꽃을 피웠다. 눈과 입으로 즐기는 교방 상차림은 제철에 나는 신선한 향토 음식과 궁중 음식으로 차려진다. 생선회와 구이, 찜, 그리고 산나물 구절판과 신선로, 죽순잡채 등 먹기에 아까울 정도로 음식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예술작품에 비유되곤 한다.

진주성에서의 시간여행은 자연스레 인사동 골동품 거리로 연결된다. 서울 종로의 인사동과 같은 이름의 이 거리는 시끌벅적한 상업성이 난무하는 서울의 그곳과는 달리 묵직하고 고요하다. 10년 전부터 상점이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이곳은 현재 5백미터의 거리에 스무 곳이 넘는 골동품 가게와 갤러리, 고가구점이 늘어서 있다. 이 길가에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가고 있다.

진주에도 인사동 골동품 거리… 서울과 달리 고요

아무렇게나 늘어선 크고 작은 석상과 석부조, 입술을 삐죽이며 금방 울어버릴 듯 재미난 표정의 돌 인형과 옹기, 여기에 재봉틀과 기왓장, 문틀, 맷돌에 무쇠솥까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것들로 가득하다. 가야 토기에서부터, 고려·조선의 도자기와 고서적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이리저리 길가에 늘어선 것들을 쓰다듬어 보고 툭툭 건드려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이 없다. 오래되고 낡은 것들로 채워진 거리라서 그런지 시간도 천천히 흘러가는 듯했다.

진주성 강 건너편의 대나무 숲을 산책하고는 정촌면의 강주연못으로 갔다. 진주는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강주라고 불렸다. 강주연못이 군사적 중심지인 강주진영의 터였다. 고려 우왕 때(1379년) 배극렴 장군이 이곳 강주연못 터에 자리를 잡고 진주성을 축조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은 연잎 가득한 생태 연못으로 변신했다.

나무로 지어진 산책로를 따라 연못을 둘러봤다. 연잎 위로 뛰어오르는 개구리들이 보이고 솜털 보송한 논병아리들이 어미를 따라 수영을 하는 귀여운 광경도 눈에 들어온다. 둘레 6백미터의 호수 주변에는 수령 6백년의 이팝나무 고목 네 그루가 작은 쉼터를 제공한다.

다시 남강으로 돌아왔다. 진주시를 관통하는 남강은 경상남도 남부를 흐르는 낙동강의 지류다. 함양군의 남덕유산에서 발원하는 남계천이 소백산지를 거쳐 진양호로 흘러들고 진양호에서 다시 남강댐을 거친 뒤 남강으로 불리다가 창녕군에 이르러 낙동강에 합류하는 물길이다. 남강을 따라 나 있는 2번 국도를 타면 진양호에 닿을 수 있다.

1 진양호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진양호는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다. **2** 인사동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익살스런 표정의 동자석. **3** 육회를 얹은 비빔밥은 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진양호는 수변 지역이 절벽으로 이뤄져 있어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로 잘 보호되고 있다. 구불구불한 국도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진양호 전망대에 도착한다. 거대한 호수를 한눈에 보기에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다. 이 거대한 호수는 마치 바다와도 같다. 높낮이를 달리한 작은 섬들과 큰 산들은 가깝거나 멀거나 그 원근을 달리하며 눈을 매료시킨다. 물에 비친 섬 그림자는 마치 섬이 물에 뛰어든 모양새다.

거대한 호수 진양호는 수달의 집단 서식지

늦은 오후 태양의 기운이 사그라질 즈음 호수는 꽃처럼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석양의 황홀한 '쇼'가 호수위에 펼쳐진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감흥에 젖는다. 그 멋진 풍경은 태양이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됐다.

산과 섬, 그리고 호수를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였던 태양은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아직 붉고 푸른 기운이 가시지 않은 서쪽 하늘 어귀에서 불쑥 달이 기어 올라왔다. 달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여자의 눈썹처럼 생겼는데,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것은 호수 위에 금빛 부스러기를 흘리기 시작했다. 호수에 바람이 스칠 때마다 반짝반짝 더 없이 예쁘게 빛을 냈다. 다시 밤이 찾아왔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가을이 시작되는 걸 새삼 깨달았다. G

글·고선영 (여행작가) / 사진·김형호 (사진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대전IC를 지나 비룡분기점에서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진주IC로 나온다. 진주는 도시가 작아 여행지가 대부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진양호가 있고 진주대교 인근에 진주성과 촉석루가 있다. 강주연못은 강의 남쪽에 위치한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20~30분 간격으로 진주행 고속버스가 운행된다. 진주 터미널까지는 3시간50분이 소요된다.

먹을 곳 중앙시장에 있는 **제일식당(☎055-741-5591)**은 허름한 외관만큼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1960년대 초 문을 열어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비빔밥을 만들었으니, 그 맛은 세월이 보증한다 할 수 있겠다. 비빔밥은 소박한 그릇에 담겨 나온다. 살 오른 나물들을 데쳐 참기름, 깨소금, 간장 등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다. 여기에 콩나물, 숙주, 시금치, 고사리, 무, 호박 등을 올리고 고추장과 푸릇한 해초가 담긴다. 마지막으로 선홍빛 군침 도는 육회를 얹은 후 쓱쓱 비벼 입안에 넣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인근 **수복빵집(☎055-741-0520)**에서는 찹쌀떡만한 찐빵 위에 묽은 팥고물을 얹은 특별한 찐빵을 맛볼 수 있다. **진주헛제사밥(☎055-743-3633)**, **진주교방상차림(☎055-755-7566)**은 수라상 전문점이다. 교방 상차림은 상차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필수.

잠잘 곳 경치 좋은 펜션은 진양호 인근에 몰려 있다.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대평면 물사랑 교육농장에서 **예쁜 펜션(☎055-758-1062)**을 운영한다. 각격은 6만원대. 인근에 위치한 **솔하우스앤갤러리(☎010-5037-2781)**는 감각적인 디자인이 멋진 펜션이다.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055-746-3734)**에서도 호수가 한눈에 보인다. 갤러리와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은 8만원 이상. **남강변 동방호텔(☎055-743-0131)**은 전통 있는 특2급 호텔이다.

문의 진주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tour.jinju.go.kr
진주시관광안내소 ☎055-749-2485
국립진주박물관 ☎055-742-5951~2, http://jinju.museum.go.kr
진양호 공원관리사무소 ☎055-749-2510

갯벌의 쇠고기, 짱뚱어

짱뚱어는 별나다. 이름도 생뚱맞고 습성이나 생긴 것이 특이하지만 맛과 영양가도 예사롭지 않은 생선이다. 아마도 전라도 바닷가 출신이 아닌 이들에게는 그 이름조차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짱뚱어는 순천, 해남, 신안, 벌교, 강진 등 주로 남도의 청정 갯벌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최근에 와서는 연안의 오염과 개발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도시 사람들에게는 구경할 순서조차 돌아오지 않는 실정이다.

짱뚱어라는 이름은 '잠퉁이'에서 비롯되었다. 물고기치고는 드물게 10월 초에서 이듬해 4월까지 무려 반년 동안이나 겨울잠을 자는 습관 때문에 얻은 명칭이다. 짱뚱어는 독특하게 등에 지느러미가 있고 유난히 큰 머리 위에 두 눈이 툭 불거져 있는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럽다. 얼핏 보면 영화 〈괴물〉의 주인공을 크기만 줄여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그 영화의 감독이 짱뚱어에서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루머도 있었다.

그러나 짱뚱어는 괴물처럼 무섭기보다는 귀여운 모습을 가졌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그 생김새를 "큰 놈은 5~6치, 모양은 무조어(망둥어)를 닮았다. 빛깔은 검고, 눈은 튀어나와 물에서 잘 헤엄치지 못한다. 즐겨 흙탕물 위에서 잘 뛰어놀며 물을 스쳐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약전은 그 이름을 볼록 할철 자와 눈목 자를 써서 철목어(凸目魚)라 했는데 해학이 깃든 작명이라 하겠다.

속명은 장동어(長同魚)라 하였는데 짱뚱어를 한자로 쓰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름이나 생김새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노는 모습이다. 짱뚱어는 만조와 간조 사이에 드러나는 바닷가, 조간대에 구멍을 파고 서식한다. 어류로서는 드물게 공기호흡이 가능한 짱뚱어는 썰물 때면 가슴의 지느러미를 이용해 갯벌을 잽싸게 기어 다니면서 먹이사냥을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뛰어다니는 것 같아 흥미롭다.

서유구의 〈난호어목지〉는 그러한 행태를 빗대어 탄도어(彈塗魚)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또한 짱뚱어는 물에서 상당한 높이로 점프도 하는데 영어명인 'Bluespotted mud hopper'는 그런 습성을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호사가들은 이런 짱뚱어가 힘이 좋다 하여 강정식품으로 치부하기도 하는데 최근의 한 연구에서 타우린과 칼륨, 셀레늄, 게르마늄, 마그네슘 등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속설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추어탕보다 한 수 위로 치는 '순천 10미'

실제로 산지 사람들은 예로부터 짱뚱어를 '갯벌 위의 쇠고기'라 했고 '짱뚱어 1백 마리와 당귀로 만든 진액을 세 번만 먹으면 1년 내내 몸살을 앓지 않는다'는 민간처방이 전해질 정도이다. 다른 생선과 달리 햇볕을 많이 쪼이며 자란 짱뚱어는 비린내가 나지 않아 탕을 끓이기에 그만이다. 그 모양은 추어탕과 흡사하지만 남도사람들은 맛도 좋고 소화도 잘되는 짱뚱어탕을 한 수 위로 친다.

순천시는 이런 짱뚱어를 고들빼기, 대갱이무침, 꼬막회 등과 함께 순천10미로 선정하기도 했다. 요즈음 산지에 가면 동면에 들어가기 직전의 생물짱뚱어탕을 맛볼 수 있다. 그동안 짱뚱어는 인공양식이 안되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양식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제 짱뚱어를 사시사철 흔하게 즐길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은 모양이다.

전남 순천의 전망대가든에 가면 순천만 갯벌을 내려다보며 짱뚱어탕을 즐길 수 있고 서울에서는 논현동의 삼호짱뚱이에서 맛을 볼 수 있다. G

조선DB

글 ·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역사는 집권 세력의 소유물임을…

최근 한 권의 책을 받고 너무나도 기뻤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께서 쓰신 〈영의정의 경륜〉(지식산업사)이라는 책 때문이었다.

필자는 '역사인물 읽기'에서 탁상공론보다는 실무능력을 통해 나라와 백성의 삶에 기여한 인물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 원장의 이 책이 바로 그같은 정신과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그동안 학자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해 학계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이준경, 이산해, 오윤겸, 이경석 4명의 조선중기 정승의 경륜을 조명해 왔다.

이산해(李山海·1539~1609)는 실록을 통해 살필 경우 참으로 탁월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왜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면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할까? 그것은 일관되게 서인과 반대되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인조반정 이후 줄곧 권력을 장악했던 서인-노론-벽파가 악의적인 비난만을 퍼부은 결과다.

이산해는 목은 이색의 후손으로 조선 초 대표적인 명문가의 후손이다. 토정 이지함이 그의 삼촌이다.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던 이산해는 20대 초인 1561년(명종16년) 문과에 급제해 사가독서를 하는 등 관리로서 탄탄대로를 달렸다.

무엇보다 그가 선조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선발하는 전권을 가진 이조판서로서 보여준 안목, 즉 사람을 보는 눈 때문이었다. 그래서 선조는 이산해에 대해 "말은 마치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몸은 옷을 가누지 못할 것 같으면서 한 덩어리 참다운 기운이 속에 차고 쌓여 있어서 바라만 보아도 항상 공경할 마음이 생긴다"고 극찬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겸손을 서인의 시각에서는 '아첨'이라고 비난해 왔다.

그는 서인에 맞선 수장이었다. 정여립의 난이 일어난 기축년(1589년) 그는 좌의정으로 있었는데 정여립과 친분이 있던 동인들이 이때 거의 소탕되다시피 하고 이산해도 자리에서 물러나 교외에서 임금의 명을 기다려야 하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선조는 그를 당장 들어오게 하여 국옥(鞫獄·죄를 신문하여 처벌하는 것)을 맡겼다. 자기 손으로 동인을 죽여야 했으니 참으로 고통의 세월이었다.

그는 동인으로 있다가 북인과 남인으로 갈릴 때 북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북인은 선조 후반 내내 득세했으며 대북과 소북으로 갈릴 때는 대북의 지도자가 되어 광해군이 즉위하는 데도 큰 공을 세웠다.

일러스트 · 유재일

그가 몇 년만 더 살았더라면 광해군의 폭정은 없었을 것이라는… 계속 정권 잡은 서인세력과 맞선 대가로 사후에도 간신의 상징으로 매도당해

그의 49년 관직생활은 그의 사위인 이덕형이 잘 요약하고 있다. "공은 가정의 교육을 잘 받아 조정에 선 지 49년 동안 일찍이 재주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에게 앞서려 하지 않아 말은 더듬고 몸 놀리는 것은 더디어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광해군 즉위년으로 향년 63세였다. 아마도 그가 몇 년만 더 살았어도 광해군은 위정의 지혜를 더하여 반정의 빌미가 된 폭정은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광해군이 내쫓김과 동시에 동인, 북인, 대북 등 이산해가 이끌었던 당파는 크게 매도당했고 이산해 또한 간신의 상징처럼 그려져 왔다. 이성무 원장의 이번 작업은 이산해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그려 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G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사투리 귀신〉

사투리 쓴다고 꼬투리 잡지 맙시다

남창순 지음
창비 · 9천5백원

〈개그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네 가지'를 즐겨본다. 인기 없는 사람, 촌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놓고 벌이는 개그의 향연이다. 소재도 좋고, 연기도 좋고, 적절한 풍자도 있어 좋다. 그런데 촌사람이라 무시하는 세태를 풍자하는 대목에 이르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먼저, 사투리를 쓰면 무시하는 풍토. 이 개그맨은 부산 지역 출신들이 서울말 익히느라 벌이는 촌극을 개그로 연기한 적이 있다. 아마 거기서 실마리를 얻어 이 개그를 짠 듯하다.

그 지역에는 그곳만의 표현법이나 억양이 있게 마련이다. 표준어를 정한 것은 이런 현상이 너무 극단화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지역사람들끼리는 표준어로 말하는 것이 맞지만, 지역의 언어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는 세련되고 사투리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생각은 서울 중심, 도시 중심의 횡포다.

두번째는 서울과 촌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항변. 촌에서 올라왔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항변 속엔 서울과 지방의 삶이 얼마나 평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가 담겨 있다. 지방이라 과거의 삶이 여전히 남아 있을 듯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걸까. 각 지역마다 다른 삶을 살고 옛것이 남아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나쁜 일일까. 사투리 쓴다고 무시하거나, 서울과 다르지 않다고 소리치는 일은 우리 삶이 그만큼 획일화했다는 말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사투리 귀신〉이 나왔다. 청소년문학소설이라 표나게 강조한지라 얼른 읽었다. 청소년들한테 다름은 다양성의 증표가 아니라 이른바 왕따의 원인이기 십상이다. 어린 영혼들마저 획일화의 덫에 걸려버린 것. 그러니 이 작품을 읽으면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얼른 읽었다.

짐작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지방에서 올라온 주인공 연정은 당연히 사투리를 쓴다. 아주 질펀하다. 서울 학생들은 당연히 이런 연정을 촌스럽다 여긴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연정이 얹혀사는 큰아버지댁 근방에 빈집이 있는데, 이 집과 관련된 괴담이 사투리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이 집은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곳이다. 아름답고 세련되고 발음도 정확했다. 그런데 정작 이 아나운서는 나고 자란 지역이 지방이라 사투리를 질펀하게 썼다. 이게 스트레스가 되었다. 결혼하고 일을 그만둔지라 방송 스트레스는 없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 나갈 일이 잦아졌는데, 방심하면 꼭 사투리를 썼다.

'다름'이 개그 소재가 안 되는 세상이 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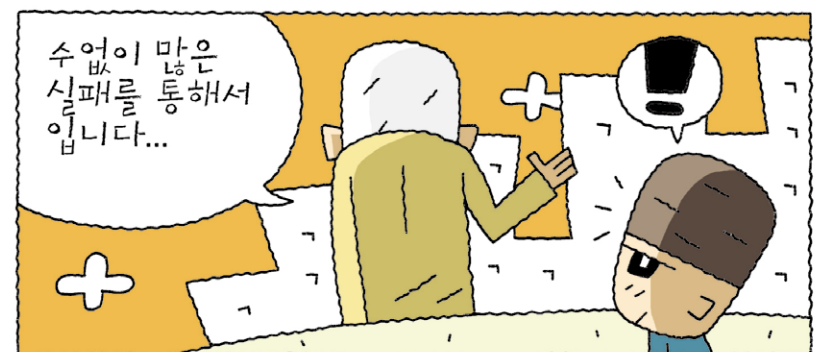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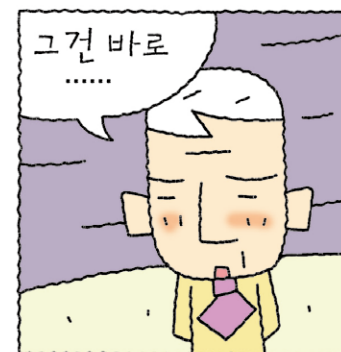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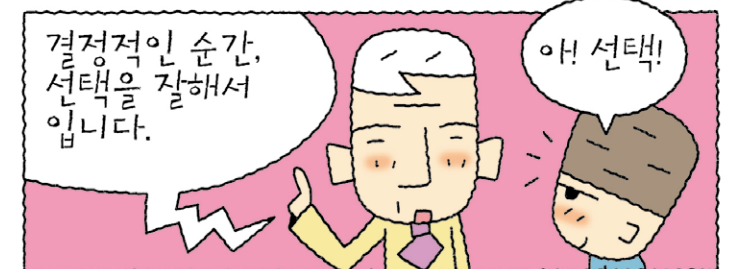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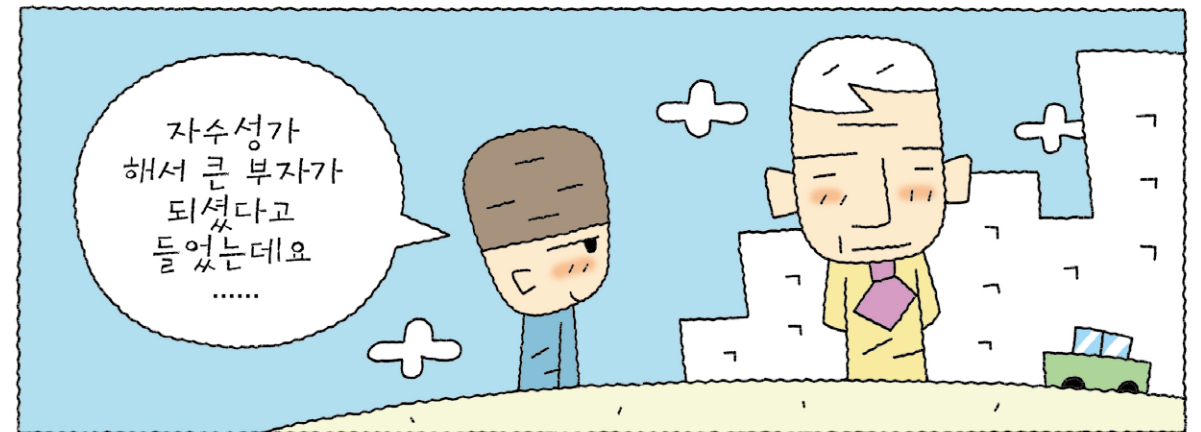
이게 화근이 되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사투리를 안 하려 필담을 나누다 오해를 사 가족들과 사이도 멀어졌다. 마침내 아나운서는 자살하고, 충격받은 집안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버렸다. 사투리는 문화다. 다른 문화를 수용하지 않을 적에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 작품은 연정이 전학 와 알게 된 또래들과 사귀는 과정도 그리고 있다. 여기서도 당연히 사투리가 문제된다. 하지만 아이들은 뜻밖에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간다. 연정이 서울말을 금세 배운 덕도 있고, 그 또래 아이들이 관심 기울일 만한 공통주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 작품에 나오는 세 소녀는 주변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서로 친구가 되어 간다.

작가는 사투리를 매개로 청소년들 사이의 관계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모양이다. 관계란 결국에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니 말이다.

개그 프로에서 촌에서 올라왔다 해서 무시당하는 내용이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다른 것이 득시글거리는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다. 피부색이 다른 것도, 말이 다른 것도, 사상이 다른 것도, 종교가 다른 것도 두루 문제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 한양대 특임교수)

성공의 비결

바보는 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반면 똑똑한 사람은 늘 다른 실수를 한다.
-칼 하인리히 바거를(오스트리아의 작가)

올해 모인화랑에서 출품한 김범준 작가의 ipig는 대개 복의 상징으로 불리는 돼지를 탐욕의 상징으로 비틀어 보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같은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는 작가만의 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애플과 돼지가 만나면?

2012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아시아 최고의 미술장터인 'KIAF 2012'가 13일 코엑스에서 열린다. 한국화랑협회의 주관으로 2002년 시작된 KIAF는 지난 10년간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아트페어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17개국 1백92개 갤러리가 참가한 가운데 8만여 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람객을 동원하며 높아진 위상을 확인했다.

올 KIAF에는 20개국 1백81개 갤러리가 참가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나아트를 비롯해 예화랑, 모인화랑 등이 참여한다. 특히 모인화랑에서는 지난해 KIAF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김범준 작가의 '아이피그'를 출품해 미술애호가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아이피그'는 현 시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애플과 돼지의 형상을 캐릭터로 접목시킨 작품이다.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기능을 통합하고 정보기술(IT) 업계를 잠식해 나가는 애플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돼지에 연관시킴으로써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만의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준다.

올해는 한국·라틴아메리카 수교 50주년을 맞아 주빈국으로 선정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서 14개 갤러리가 참여할 예정이다. 콜롬비아의 대표 작가 페르난도 보테르의 작품과 베네수엘라 출신의 세계적인 옵-키네틱 아트의 거장 크루즈 데이즈의 특별 부스가 주목할 만하다.

정리·이현민 인턴기자

기간 9월 13~17일 **장소** 코엑스 **문의** ☎02-766-3702(한국화랑협회)

전시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서울국제미디어아트는 2000년 '미디어시티'로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국제행사다. 올해는 'Spell on you'를 주제로 17개국 미디어아트 작가 50명의 영상·설치·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 뉴미디어를 통해 동시대의 예술과 과학, 인문학, 테크놀로지의 끊임없는 교류를 관람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국내의 미디어아트 작가인 최재은·김기철·김원화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오프닝 기간인 13일과 14일에는 국제 심포지엄도 진행된다.

기간 9월 11일~11월 4일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문의 ☎070-4473-8858

전시 스티브 맥커리 사진전

예술 사진가인가, 보도 사진가인가. 장르를 넘나드는 천재적 사진가 스티브 맥커리의 두번째 사진전이 열린다. 2010 '진실의 순간'전과 달리 올해는 테크닉이나 인위적 장식을 쓰지 않고 빛과 어둠만으로 창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1백 점의 작품이 이번 전시에서 베일을 벗는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완벽에 가까운 색상과 구성, 시각적 예술성뿐만 아니라 휴머니티를 느낄 수 있는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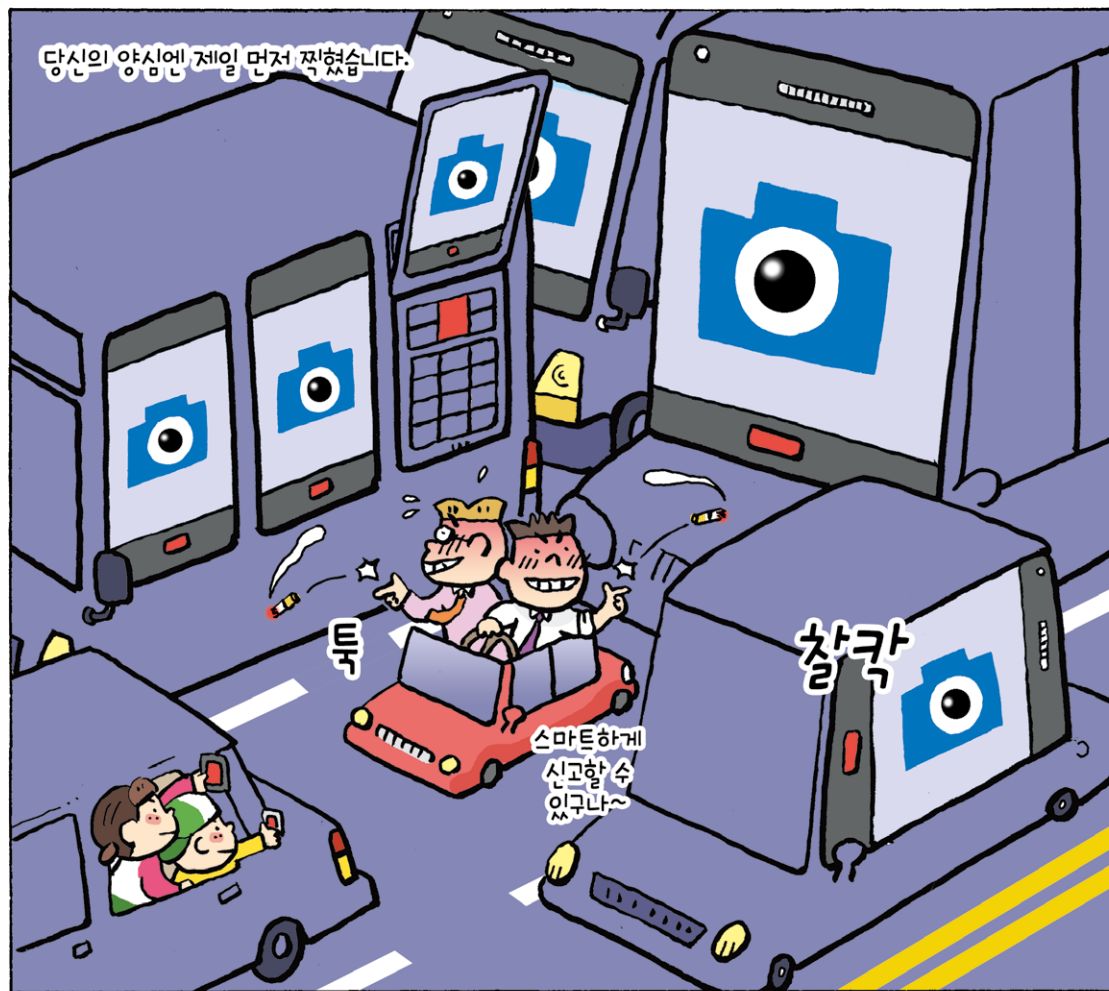
기간 9월 12일~10월 21일 **장소** 예술의전당 V-갤러리
문의 ☎02)511-2931 어반아트

9월 둘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8월26일 ~ 9월 1일

	곡명	가수
1	All For You	서인국, 정은지
2	I Need You	허각, 지아
3	Pandora	카라
4	강남스타일	싸이
5	그XX	G-Dragon
6	아름다운 밤이야	비스트
7	Only One	보아
8	내 사랑아	이종현
9	Loving U	씨스타
10	뜨거운 안녕	싸이

꼼짝 마!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즐거운 교통문화를 만듭니다.

배 안 고프다고… '사랑은 고프다!'

사무실 근처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다. 사실은, 양념을 하지 않은 하얀 순두부를 먹고 싶었는데, 차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중국집으로 슥 들어간 거다.

토요일 오후에 혼자서 먹는 점심은 항상 이런 식이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다 사람 관계이고, 나무에 매달린 꽃과 잎이 어울리듯, 우리들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식구가 서로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거리는 건강한 생명의 거리이다. 때가 되어 밥을 먹는 풍경은 경건하고 아름답다. 그 거리가 무너지면 위험하고 불길한 시대가 된다.

그날 허기나 달래기 위해 오후 3시경에 중국집에 들어가니, 손님이라곤 나와 가족으로 보이는 4명의 여자가 있었다. 엄마와 세 딸이다. 막내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방실방실 웃는 모습이 귀엽다. 첫째는 고등학생인 거 같은데 얌전하다. 그런데 둘째는 아마도 '중딩(중학생)'인가 싶다. 계속 문자메시지인지 카카오톡인지를 하면서 고개를 스마트폰의 작은 액정화면에 기어 들어갈 듯 하고 있었다. 음식이 나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엄마가 인상을 쓰면서 '밥 먹어'라고 하자, 그 아이는 고개를 들고는 '배 안 고프다고!' 한다. 중딩들의 저 독특한 억양, 우리말의 억양과 띄어 읽기를 무시한 그 이상하고도 도전적인 한마디가 조용한 중국집에 울려 퍼진다.

일러스트 · 박영길

짜장면은 안 먹고 스마트폰에 푹 빠진 여중생

엄마와 두 딸은 짬뽕을 먹고 있다. 마치 자신은 식구가 아니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것인지, 그 중딩은 내가 짜장면을 다 먹을 때까지 젓가락도 들지 않는다.

짜장면을 다 먹고 나오면서 그 가족을 다시 보았다. 막내와 첫째는, 그리고 엄마는 음식 그릇을 거의 다 비우고 있다. 속이 상한 엄마의 인상이 구겨져 있다. 저렇게 식사를 하면 병에 걸린 텐데 라는 걱정이 들었다. 계속 액정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 저 녀석, 꿀밤을 한 대 먹이고 싶다. 엄마는 이제 포기를 한 것 같다.

면에 짜장이 부어진 채 짜장면은 그대로 있었다.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대신 먹어 줄 수도 없고, 저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지 아는 사람은 잘 아는데, 저걸 어쩌나….

배/ 안/ 고/ 프/ 다/ 고.

그날 내가 쓴 시다. 제목은 〈21세기 스티브 잡스가 떠나간 자리에서 부르는 엘레지〉이다. 나는 정말 배가 고프다. 뭔가 갈증이 난다. 배가 고파야 뭔가를 하는데, 계속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는 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핵가족에서 더 쪼개질 어떤 가족이 있나 하는 생각도 한다. 아이의 모습은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다. 사춘기 아이가 투정을 부리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인간 성장기의 한 모습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날, 식구들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았던 거다. 성폭력을 비롯해서 점점 흉포해지는 범죄와 빈부격차, 인종주의적인 타인에 대한 적대감. 우리 사회가 지금 자꾸 서로서로를 멀리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정신이 지금 저 식어빠진 짜장면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이가 나무젓가락을 들고 짜장면을 맛있게 먹을 시간을 기다린다. 다음 주 토요일은 좋아지겠지 하면서. G

글 · 원재훈 (시인 · 소설가)